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서사무가의 문화수용 양상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旻贊

2007年 8月

제주 서사무가의 문화수용 양상

指導教授 許 南 春

金 旻 贊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金旻贊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8月

The Manner of Cultural Reception in Epic Shamanistic Songs of Jeju

Kim, Min-Chan

(Supervised by professor Heo, Nam-Ch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_____

2007. 8

Department of Oceanograph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 |
|-------------------------------|-----|
| 1. 서 론 | 1쪽 |
| 1.1 서사시로서의 서사무가 | 1쪽 |
| 1.2 제주도의 무속 서사시-본풀이 | 2쪽 |
| 1.3 논의의 목표와 텍스트 | 3쪽 |
| 2. 제주 서사무가의 원시성 | 6쪽 |
| 2.1 신앙서사시 | 6쪽 |
| 2.2 창세서사시 | 9쪽 |
| 2.2.1 제주의 창세 서사시 개관 | 10쪽 |
| 2.2.2 천지개벽에 나타난 원시적 성격과 변이 | 10쪽 |
| 2.2.3 天父地母의 결합과 부친탐색 | 14쪽 |
| 2.2.4 日月調定 화소에 드러난 원시와 고대적 성격 | 15쪽 |
| 2.2.5 人世차지 경쟁 | 17쪽 |
| 2.3 屍體化生과 惡人懲治 | 20쪽 |
| 2.3.1 屍體化生 | 20쪽 |
| 2.3.2 惡人懲治의 원시적 사유 | 21쪽 |
| 3. 제주 서사무가의 고대성 | 24쪽 |
| 3.1 건국서사시 | 24쪽 |
| 3.2 삼승할망 본풀이 | 34쪽 |
| 3.3 초공본풀이 | 35쪽 |
| 3.4 이공본풀이 | 39쪽 |
| 3.5 꽃과 재생·풍요 | 42쪽 |
| 4. 제주 서사무가의 중세성 | 46쪽 |
| 4.1 중세서사시의 전승 | 46쪽 |
| 4.2 문화의 갈등 | 53쪽 |
| 5. 결 론 | 55쪽 |
| ※참고문헌 | 57쪽 |
| ※Abstract | 60쪽 |

1. 서론

1.1 서사시로서의 서사무가

태초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인간들은 단순히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단계에서 조금씩 발전하며 주변의 사물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자연적인, 그들을 지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발전하면서 최초의 신앙이라 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신앙의 대상들을 노하게 하면 재앙이 생기지만 잘 받들면 자신들의 기원을 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그 대상들에 대한 제의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들의 기원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다.

그리고 당시 제의에서 불려지던 이 노래들은 제의를 주관하던 무당들에 의하여 불려지고 공동체 전체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들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서사시라 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조금씩 발전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흔히 문학이라 부르는 대상들은 결국 집단적인 제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인적인 데까지 그 범위를 넓혀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파생된 문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설화라고 부르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설화는 한 민족 사이에서 구비전승 되어온 모든 이야기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설화의 발생은 자연적이고 집단적이며, 그 내용은 민족적이고 서민적이어서 한 민족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설화는 작품이 가진 내용, 전승자가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 설화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 증거물의 유무, 주인공의 성격, 전승되는 지역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중 신화는 어느 민족에서나 최초 민족의 형성 당시부터 서사시로 불려지며 그들 민족의 신성성을 강조하여 민족의 자부심과 민족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켜주던 기능을 수행했다.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 신성시되어 전승되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화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은 신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신성성을 상실하는 순간 전설이나, 민담으로 변모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설화의 경우에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라든가, 홀어머니에게 효성스럽던 일곱 아들이 죽어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원래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적 성격을 가진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신성성을 상실하여 변모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이다.

즉, 신화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설이나, 민담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의 신성성은 고대의 주술, 종교적 제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다.¹⁾

이러한 속성들을 지닌 신화는 각각의 민족들이 창조해낸 이야기이고 그 민족의 생활감정이며, 한 민족의 단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각각의 민족들이 소유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화는 구전 신화는 물론 문헌신화조차도 유교의 강한 영향력 아래 부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고구려 건국 신화를 기록하여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이규보조차도 한 때는 “공자께서는 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²⁾”고 하며 고구려 건국 신화를 무시했던 사실을 언급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신화들은 중세 이후 지배층의 이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유교의 합리주의 아래서 ‘괴이한 이야기’ 정도의 취급을 받아 온 것이다.

그러한 탓인지 우리는 신화라고 하면 보통 문헌에 기록된 신화만을 떠올리고, 구전된 신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수집해 보면 우리에게서 서사무가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신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사무가란 무속신앙에서 신앙의 대상인 무속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무가의 형태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무속 신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속신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굿에 쓰는 악기반주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준다는 점에서 구비서사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다. 서사무가의 주인공은 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이면서 인간이고, 더 나아가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화의 개념과는 어긋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유형으로는 <제석본풀이>, <바리공주>, <칠성풀이> 등이 있으며, 관북지방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창세가>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천지왕본풀이>를 비롯한 12본풀이와 각 마을의 당신 본풀이 등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무가가 남아 있다. 이러한 서사무가들은 그 기원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마 이들 무가들은 그 기원을 고대 및 원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들 무가들이 “본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 서사시로서 혹은 설화의 형태로 제주인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본풀이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서사무가들은 천지창조나, 윤리 등에 대한 고대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며, 태초의 형태에서 어떠한 변개과정을 거쳤는가와, 여러 지역의 설화나 무속 서사시와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 신화란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서 천지 창조나, 신의 내력, 日月星辰 등의 천체에 대한 이야기, 산과 강 같은 자연물의 형성, 국가의 건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서사무가들은 이러한 성격에 부합된다. 이들도 巫俗神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신화의 범주에 들어간다 할 수 있다. 또한 서사무가는 노래로 구술된다는 특성상, 율격 구조를 갖춘 시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특성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이야기들을 구전 서사시로 파악하는 것도 타당한 시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승 집단이 무속이라는 점에서 무속 서사시로 분류함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2 제주도의 무속 서사시-본풀이

1) 현용준, 「고대신화와 한국신화의 원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84쪽.

2)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先師仲尼不語怪力亂神

제주에 전승되고 있는 신화 중 분량 면에서 압도적인 것은 巫歌神話이다. 즉 무속신들의 이야기를 무가라는 노래의 형식으로 부르는 무속 서사시이다. 이 무속신들의 이야기를 제주도에서는 “본풀이”라고 부른다.

본풀이의 본은 근본, 내력 등을 의미하는 말이며, 동사 “풀다”는 해설, 해석, 설명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또한 동시에 “노여움을 풀다”라든가 “문제를 풀다”, “몸을 풀다”와 같이 화열, 해결, 용해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신을 희열케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

무가가 무당들이 받들고 있는 신, 또는 굿판을 마련한 자가 기원하는 바를 주재하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무가는 서정적 감동력을 발휘하여 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신의 내력을 노래와 구술로 엮어 부름으로써 기쁘게 할 수도 있다. 전자가 抒情巫歌라면, 후자는 敘事巫歌이다. 제주도에 서정무가의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제주의 서사무가는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이승과 저승의 구별, 각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의 위계질서 등 세계의 전체상을 설명하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의 문명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신화 속의 가치관이 제주인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최근까지도 무시 못 할 정도라 할 수 있다. 비록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주인들의 의식 속에는 신화, 즉 서사무가의 가치관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 것 같다.

1.3 논의의 목표와 텍스트

제주도는 분명히 구비 서사시의 고장이라 할 만한 곳이다.⁴⁾ 제주도는 왕조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고유의 무속적 전통을 지켜 온 고장이다. 즉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덜 받아 한반도의 본토와는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무속의 뿌리가 강한 곳이다.

문학을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제주도의 고전문학에서는 구비문학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이는 제주도가 한반도 내에서는 서사무가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라는 점과 유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사무가들은 아득한 태곳적 서사시의 잔형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도 서사문학의 뿌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곳으로서 외부와 단절된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제주도는 그 지리적 여건상 한반도의 본토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게 된다. 즉, 중세 이후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불교나 유교의 세례를 비교적 덜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문학에도 반영되어 서사문학에 있어서는 무가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가는

3)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43쪽.

4) 조동일은 그의 저서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 지성사, 1997)에서 제주도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중심에 놓고 있다.

고대의 원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고대 서사시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작품의 양적 측면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조동일은 구비전승되는 세계 각 민족의 신화를 묶어 구비서사시로 정의하며 신앙서사시와 창세서사시, 영웅서사시와 건국서사시, 범인서사시와 생활서사시 순서로 전개되었다고 보았으며, 각각 신앙서사시와 창세서사시는 원시, 영웅서사시와 건국서사시는 고대, 범인서사시와 생활서사시는 중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⁵⁾

원시 및 고대 서사시에는 천지개벽과 건국 등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는 본토의 서사시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과 구조들을 찾아 볼 수가 있으나, 또한 반드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같은 민족 공동체로서, 최초에는 동일한 양식의 서사시가 구비전승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역적·환경적·문화적 영향에 의해 본토와 제주의 서사시가 각각 변개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원래 구전문화는 그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지속과 변화를 축으로 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는 구전서사시의 지속과 변화라는 두 층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⁶⁾

우리에게 전해지던 많은 서사시들은 유교나 불교의 중세적 가치관에 의해 상당 부분 변질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되어, 그 원형 발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비교적 많은 양의 서사시가 남아 있으며, 본토에 비해서도 국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덜 받아 그 형태는 원형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토와 제주의 것들을 비교해 봄으로서 민족 서사시의 최초의 원형에도 더욱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원래 신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창세서사시나 신앙서사시에는 고대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들이 상상하는 자연의 이치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스 신화에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 <구약>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選民사상이나 도덕관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듯이, 제주도의 서사무가에도 고대 제주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대인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을 살다 간 우리의 조상들은 어쩌면 매우 소박한 생각을 가졌었고 그들의 삶은 매우 평범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들이 살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긴 이야기이자 노래인 서사시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더듬어 보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들이 지닌 서사시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찾아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서사시의 전승 양상을 살펴본다면 옛 제주인들이 지녔던 세계와 자연, 윤리 등에 대한 그들의 소박한 사고방식과 그 당시 사회의 면모, 그들이 지녔던 삶의 방식 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주의 서사시를 시기별로 원시서사시와, 고대서사시, 중세서사시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원시서사시는 고대와 중세의 이념과 가치관을 수용하여 본래의 모습에서 추가되거나 변형된 형태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대서사시는 고대로 접어들며 고대적 가치관과 관념을 수용한 결과가 현재 전해지는 양상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세서사시는 원시와 고대의 원형에 중세적 이념과 가치관이 수용되어 변형되는 과정을 거

5) 조동일, 위의 책, 34-35쪽.

6) 김현선, 「한국 구전 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4집, 구비문학연구회, 1997, 369쪽.

쳐 현재의 전승 형태로 굳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세경 본풀이>같은 경우, 여성인 주인공의 적극성과 진취성, 가장 완결되고 풍부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태고의 원형에 근대적 의식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제 본고에서는 제주의 '일반 12본풀이'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 서사시가 지니고 있는 전승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당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천지개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생각, 선과 악에 대한 관념, 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사회의 모습, 그들이 신화를 통해 기원하고자 했던 사항 등을 아울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12본풀이'의 주요 작품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그 전승 양상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퀘네깃당 본풀이>나 <송당 본향당 본풀이>,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와 같은 당 본풀이, <고대장본풀이>, <양이목사본풀이>와 같은 조상신 본풀이도 그 전승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더불어 그들의 전승 요소들이 본토의 대표적 신화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논해 봄으로서, 제주 신화와 본토와의 연관관계 및 상호 영향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텍스트의 성격상 해석하기 힘든 방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논의의 편의상 현용준과 현승환이 역주한 『제주도 무가』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이 저서의 현대 표준어 역본을 기본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을 보조 자료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2. 제주 서사무가의 원시성

2.1 신앙서사시

제주도의 서사 무가 가운데에는 오래전 제주도에서의 수렵 문화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있는데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본풀이는 서귀포 본향당 당신인 동시에 사냥과 바람을 관장하는 신의 내력담을 읊은 것으로서 성격상 신앙서사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신앙서사시는 당본풀이의 기본 형태이다. 당본풀이는 모두 신을 섬기는 말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같은 것은 바람의 신이면서 사냥의 신인 바람운이 못생긴 본부인을 버리고 어여쁜 첩을 데리고 제주도로 도망와서 생기게 된 갈등구조와 여러 사건들에서 서사시다운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을 만나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신의 내력을 읊은 신앙서사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는 몇 개의 이본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문관 바람운님⁷⁾(風神)이 고산국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처제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천하절색이었다. (고산국부인의 아방국이 홍토나라 홍토천리 어멍국이 비우나라 비우천리였는데 바람운님이 이곳을 다니다가 친하미색인 고산국의 동생을 보고 박색(薄色)인 고산국에게 잘못 장가를 들었다고도 한다.) 결국 마음이 통한 바람운님과 고산국의 동생은 고산국을 피해 제주도로 피난을 오게 된다. 고산국의 동생은 피난을 오자 성을 바꿔 이름을 지산국이라 하였는데, 둘이 고산국 부인을 피해 한라산에 들어와 보니 천지가 캄캄하였다. 이때 바람운님이 구상나무를 꺾어서 층하절벽에 꽃자 닭이 울어 세상이 밝아지고⁸⁾, 또 화살 두 개를 쏘자 슬오름상봉으로, 지산국이 뽕개질(돌맹이를 끈에 묶어 돌리다가 띄워 던지는 것)을 하자 슬오름 동산이 되었다. 바람운님과 지산국은 그곳에 가서 신선놀음을 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윗서귀리 안국지의 김봉태 할아버지가 그 길을 지나가자 그를 불러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김봉태가 그들을 데리고(그 神位를 모시고) 집에 내려오자 바람운님과 지산국은 그 냄새가 심하여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는 다시 김봉태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하여 먹구들 꿰우들로 가는데 그곳엔 물소리, 개소리, 닭소리가 심해 또 있을 수가 없고, 이번엔 가시머리 외들로 가니 그 곳이 괜찮아 거기서 다시 신선놀음을 하며 지낸다. 한편 고산국 부인은 바람운님 내외를 죽이 고자 뒤를 쫓아오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어 화살 두 개를 쏘아서 땅과 지경을 가르기로 한다. 고산국이 먼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그만 문섬에 떨어진다. 그래서 뽕개질을 하였는데, 지산국이 던진 돌은 연뒤동산에, 고산국이 던진 돌은 흙담에 떨어진다. 이렇게 땅이 나뉘자 고산국은 “동·서흥리 이 두 서귀리 사이에 이제 서로 사돈도 맺지 말고 또 서로 말과 소도 바꾸지 말자.”고 하였고, 고산국과 바람운님 내외가 각기 자리를 잡자 김봉태 할아버지 내외는 정월 초하루 날, 이월 영등 열 사흘 날, 그리고 칠월 열 사흘 날 온갖 정성을 다해 이들을 모셨다.⁹⁾

7) 이본에는 바람또라고도 한다.

8) 이본에 따라 구상나무를 꺾어 세상을 밝힌 건 바람운과 지산국을 쫓아온 고산국이었다고도 한다.

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497-499쪽 참고.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는 바람운님과 고산국, 지산국이 제주땅에 좌정하게 된 경위, 당신인 바람운님이 구상나무를 꺾어 절벽에 꽂자 세상이 밝아지고 화살을 쏘아 오름을 만드는 등의 신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당신을 만나게 된 김봉태가 신을 모시는 단골로서 정월 초하루 날과 이월 영등 사흘 날을 祭日로 삼았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또한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는 고산국과 지산국이 땅을 나눔으로서 동흥리, 서흥리 사이에 혼인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는 오래 전, 수렵 집단에서의 사냥의 신과 바람의 신으로서의 바람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람이 짐승 쪽에서 사람 쪽으로 불어야 사냥을 할 수 있고, 바람이 사람 쪽에서 짐승 쪽으로 불면 사냥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람과 사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¹⁰⁾

그러나 이 서사무가의 주인공인 바람운은 그 이름에서 바람의 신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 바람의 신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사냥의 신으로서의 활동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바람운이 한라산에 들어가 보니 천지가 캄캄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람운이 구상 나무를 꺾어 절벽에 꽂자, ‘천왕담’과 ‘지왕담’이 울면서 세상이 밝아졌다고 한다. 이는 마치 천지개벽의 상황을 보여 주는 듯한 대목으로 비록 성격상 창세 신화는 아니지만, 최초의 개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초점은 창세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에서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바람운의 좌정 경위와, 그의 사냥과 관련된 행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서사시의 성격은 창세서사시보다는 수렵 문화 집단에서의 사냥신에 대한 제의적 성격의 서사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진 후 지산국과 같이 산에 올라 바람운은 활을 쏘고 지산국은 뽕개질을 했다는 대목에 주목하여 그 일련의 과정들은 사냥의 신으로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사냥을 개척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활을 쏘는 행위나 돌을 끈에 묶어 던지는 ‘뽕개질’을 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사냥과 관련된 행위이다. 또한 사냥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장소가 많은 짐승들이 모여 살았을 한라산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인간들에게 좋은 사냥터가 되어 주는 ‘오름’의 형성이라는 점도 그들의 창세 행위는 어디까지나 사냥을 위한 공간 확보라는 성격이 강하며, 이는 그들이 사냥신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최초로 사냥의 기술을 개발하여 사냥을 시도했을 당시의 기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지개벽 못지않은 충격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래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졌다는 식으로 묘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냥을 개척한 신이라면 인간들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줘야 한다. 오름을 만들었다는 대목은 이런 인식의 반영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는 더 이상 사냥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신선놀음’을 한다고 하는데 남녀간의 정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선놀음’을 하는 대목은 사냥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사냥이 인간의 주요한 생업 수단이었던 수렵 문화 단계의 시절, 그 날 하루하루의 사냥이 잘 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냥물의 풍성한 번식이다. 풍성한 번식은 암수간의 교미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냥의 신이 스스로 사냥을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는 사냥감이 번성하게 하는 신 노릇을 하는 것이 더욱 긴요했으므로 남녀 관계를 가져 자연의 풍요를 가져올 주술로 삼은 것이다.¹¹⁾ 남녀신의 성행위는 못 짐승들의 교미를 의미

10) 조동일, 위의 책, 54쪽.

11) 조동일, 위의 책, 55쪽.

하며 이러한 행위를 신에 대한 제의에서 부르는 서사무가에서 묘사함으로써 사냥물의 번식을 기원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부분에서 못생긴 처 고산국을 버리고 예쁜 처제와 더불어 애정의 도피 행각을 벌이는 대목 역시 사냥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발한 생산을 위해 못생긴 처보다는 절색인 처제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곧 바람운과 지산국이 사냥의 신이면서 동시에 풍요신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사냥의 신이 못난 본부인을 버리고 아름다운 처를 데리고 도망쳐서 성행위를 한다는 설정은 자연의 풍요를 돕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 풍요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의 원시적 사고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들 종족의 번성과 다산, 풍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종의 번식은 성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성행위는 종족번식과 풍요의 수단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 전세계 원시시대의 벽화나 조각품 등에서 보이는 성기가 과장된 남녀의 모습이나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조각품 등은 이러한 원시적 사유의 표현으로 풍요와 번식, 다산을 기원하는 상징물인 것이다.

결국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에서의 고산국을 버리고 지산국을 선택한 행동과 지산국과의 성행위는 풍요를 기원하는 당대 제주인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산을 위한 성적인 결합과 이를 통한 풍요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원시적부터의 사고방식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김봉태의 등장과 행위 역시 이 서사시가 사냥신에 대한 의례와 연관되고 사냥의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짐승 가죽옷을 입고, 사냥개를 거느린 김봉태는 차림새부터가 사냥꾼이다. 사냥꾼인 김봉태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바람운과 지산국을 발견하고 절을 하고 받드는 점과 이들을 모시고 날을 정해 제의를 올리는 것은 이들 신들이 사냥과 관련된 신이고, 이들의 행위 역시 사냥물의 번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봉태에 의해 제사를 받게 된다는 결말부에서, 이 서사시가 신의 내력과,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신앙서사시라는 점을 확인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구조와 사냥과 풍요에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원시서사시의 성격을 지닌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활을 쏘고 뽕개질을 해서 사냥을 개척하고 사냥할 장소를 만들었다는 점, 성행위를 통해 사냥감의 풍요를 기원하고 있으며, 사냥꾼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는 점은 이들 신들이 사냥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사냥과 바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의 이름이 '바람운'이라는 점은 바람신의 성격도 아울러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두웠던 천지를 구상나무를 꽂아 밝힌 후에, 사냥을 의미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원시 인류가 농경 문화 이전에는 수렵 문화 단계에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는 수렵문화 시대에 사냥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면서 사냥물의 번성을 기원했던 당대인들의 소망이 반영된 신화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동흥리와 서흥리 사이에는 서로 혼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을 간의 행동양식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속신화의 사회적 기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운은 일제강점기에 채록된 자료에서는 땅에서 솟아났다고¹²⁾하였는데, 이는 이

12) 赤松智域·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大阪屋號書店, 1938, 341쪽.

서사시가 원래는 용출형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용출형과 이 신화의 수렴문화적인 면모는 현용준이 지적했듯이 <삼성신화>와 제주도의 다른 당본풀이에서 그 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¹³⁾, 제주신화가 본토의 강림형 신화와는 다른 계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활을 쏘고 뽕개질을 해서 좌정할 땅을 나눈다는 설정은 뒤에 언급할 <삼성신화>에서의 삼신인이 활을 쏘서 지경을 나누는 것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제주신화가 간직한 원형적 면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구비문학은 지역들 간에 서로 전파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본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나, 이 본풀이의 경우 비교적 본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 수 있다. 본토와 구별되는 제주의 독자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대 수렴문화의 면모를 보여주는 서사시인 것이다.

2.2 창세서사시

제주에는 일반 무가인 <천지왕본풀이>라는 이름으로 창세서사시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본토에도 흔히 <창세가>라고 통칭되며 창세서사시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승되고 있다. 같은 민족 문화권 안에서 지역별로 창세서사시가 전승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원래 우리 민족이 창작하고, 구전하여 전승해 온 창세서사시가 지역적으로 변이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역적 변이에는 지역의 특성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역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다른 문화나, 각 시기별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신화는 구비서사시의 모습에서 문헌에 문자로 기록되어 정착된다. 전 세계의 어느 민족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창세서사시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문헌에 서사시를 기록하게 되면 보통 창세서사시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여 후세에 남긴다. 그러나 한반도의 서사시 가운데 문자로 기록된 서사시는 건국서사시가 중심이다. 이는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고대국가를 건설하고 왕권을 확립하여, 왕권의 신성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국서사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사시들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창세서사시는 천지, 만물, 인간 그리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경위를 말해 준다. 이러한 내용의 서사시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처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모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가로만 남아 있다.

무속서사시 속에 존재하는 창세서사시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의 본토지역에 존재하는 함흥, 강계, 평양, 오산, 영해, 강릉, 울진 등지의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 지역의 신화이다. 제주의 신화와 한반도 본토 지역의 신화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제주의 신화는 천지창조와 천지창조 이후의 인세 시조가 출생하는 내용이 제 1세대의 결합, 2세대의 출생이라는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¹⁴⁾. 반면에 본토의 창세신화는 천지창조의 과정과 인세 차지 경쟁 과정에만 한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13)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58-60쪽.

14)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34-35쪽.

2.2.1 제주의 창세서사시 개관

제주도에 전승되고 있는 창세서사시¹⁵⁾는 흔히 <천지왕본풀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만물이 생겨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천지왕이 지상에 내려와 악행을 일삼던 수명장자를 징벌하며, 천지왕과 총맹부인이 결연을 맺는다. 그후 천지왕은 천상으로 돌아가고, 총맹부인은 대별왕, 소별왕 형제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천지왕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나며, 해와 달이 여럿이어서 활로 쏘아 지금과 같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과정과,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여 동생인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형인 대별왕이 저승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특히 대별왕과 소별왕 사이의 인세다툼에서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이 세상을 차지한 결과 이승과 저승의 분열이 생기고 이승에 혼란과 악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천지개벽, 일월조정과 더불어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 <천지왕본풀이>의 이러한 화소들은 창세서사시의 기본적 유형 내지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창세서사시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화소들을 본토의 창세서사시와 비교해 보면 공통되는 요소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공통되는 요소는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인 세계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기보다는, 1차로 중세 불교와 유교 문화의 침투 속에서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이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2차로는 다른 신화의 영향을 받아 변이된 화소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제 제주와 본토의 각각의 화소들을 분석하며, 그 시기적 성격과 반영된 인식 등을 살펴보자.

2.2.2. 천지개벽에 나타난 원시적 성격과 변이

제주의 창세신화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편의상 그 내용만 요약하여 소개한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의 상태였다.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이 서로 맞붙어 있었고, 암흑에 싸여 한덩어리인 상태였다. 그러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하늘의 머리가 열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가 점점 분명해져 간다. 이때, 하늘에서 내린 靑이슬과 땅에서 솟은 黑이슬¹⁶⁾이 합쳐져 만물이 생기며 먼저 온갖 별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아직 암흑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동쪽의 靑구름, 서쪽의 白구름, 남쪽의 赤구름, 북쪽의 黑구름, 중앙의 黃구름만이 오락가락하다 天皇담이 목을 들고, 地皇담이 날개를 치고, 人皇담이 꼬리를 쳐 크게 우니, 甲乙동방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에 천지왕이 해도 둘, 달도 둘을 내보내 천지는 활짝 개벽이 되었다.¹⁷⁾

15) 제주의 창세 신화는 흔히 <천지왕 본풀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지개벽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곳의 第次에서 초감제의 베포도업침 부분에서 불려진다. <천지왕 본풀이>는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합부터 시작된다. 초감제에서는 천지창조와 그후 천지왕과 대별왕 소별왕 형제의 상봉, 일월조정만 들어 있는데 비하여 <천지왕 본풀이>에서는 대·소별왕 형제의 출생부터 부자 상봉, 일월 조정, 인세차지 경쟁 등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다. 흔히 제주의 창세 신화를 이야기 할 때는 초감제의 천지창조 부분과 <천지왕 본풀이>의 내용을 통틀어 편의상 <천지왕 본풀이>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본고에서도 여기에 따르도록 하겠다.

16) 판본에 따라서는 물이슬이 솟았다고도 한다.

17)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 큰 곳 자료』, 2001. 참고.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있는 혼합에서 하늘과 땅이 서로 떨어지는 개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혼합에서 개벽으로의 변화, 즉 태초의 천지개벽은 창세신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창세서사시나 천지만물이 생겨난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서 태초에는 혼돈의 상태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웃 중국이나 일본의 신화에 서도 보이는 내용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혼돈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중략) 가벼운 부위들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거운 부위들은 밑으로 가라 앉아 땅과 바다가 되었다. 거인 반고 역시 이 알에서 나왔다. (중략) 반고가 죽고 난 뒤 그의 몸이 분해되어 배는 산을 이루고, 두 눈은 각각 해와 달이 되었으며, 눈물은 강이, 숨결은 바람이, 뼈는 쇠붙이와 돌이 되었다. 그의 정액은 진주가 되고, 그의 골수는 옥이 되었다.¹⁸⁾

라고 하여, 최초의 우주는 혼돈 상태였으며 여기서 태어난 거인신 반고에 의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어 우리와의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세 신령이 남신 이자나기와 여신 이자나미를 만들었고 이들에 의하여 이 세상 만물과 일본 땅이 만들어 졌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¹⁹⁾

이렇게 최초의 우주는 혼돈 상태였다는 내용은 제주와, 중국, 일본에서의 공통적인 인식이고, 세계 여러 지역의 창세 신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세계 보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원시서사시 단계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 세상이 이루어진 내력 등의 내용으로 서사시가 형성된다.²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서사시의 천지개벽 화소는 원시서사시의 성격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천지개벽 화소에는 원시적 성격만이 아니라 중세적 요소도 보인다. 동양 고유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하늘의 청이슬과 땅의 흑이슬이 합쳐짐으로 인해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하는 것이고, 靑, 白, 赤, 黑, 黃은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각각 동, 서, 남, 북, 중앙의 방위를 상징하고 있는 색이다. 또한 三極論에 따르면 우주 만물의 기원은 天·地·人의 三極이다. 그리하여 천·지·인의 세 마리 닭이 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최초의 빛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음양오행설이나 삼극론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문명권, 특히 중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중세 무렵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음양오행설과 삼극론에 따라 태초 혼돈 상태에서의 천지개벽과 만물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중세 이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들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와 유사한 예는 본토에도 존재하는데, 편의상 현대 표기로 옮기고, 단어 자체는 바꾸지 않겠다.²¹⁾

인간 사람이 하늘이 열릴 적에 子方으로 열리시고, 이 땅이라 벽(생기다)활적에 丑方으로 벽합시고

18) J. F. 비얼레인 著, 현준만 譯, 『세계의 유사신화』, 1996, 94쪽.

19) J. F. 비얼레인 著, 위의 책, 95쪽.

20) 조동일, 위의 책, 34-35쪽.

21) 앞으로도 방언이 뒤섞인 자료들은 편의상 현대 표준어로 옮겨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은 寅方으로 범을 시계 놓고, 이 천지를 개벽(開闢)하고²²⁾

하늘은 자시에 자방으로 열리고 땅은 축시에 축방으로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났다는 것은 12지의 순서에 따라 세상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이는 우리 고유의 사상체계가 아니고 중국에서 체계화된 우주생성론이 이입된 것이다.²³⁾ 역시 중세에 접어들어 우주생성에 대한 보편적 사상을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제주와 더불어 본토의 창세서사시도 중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천지개벽시 닭이 울고 나서 천지가 개벽되었다는 내용 또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에서도 닭이 울고 나서 천지가 밝아졌다고 하여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닭은 울음으로서 새벽을 알리는, 즉 광명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이다. 천지개벽이 특히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유는 새벽이 닭의 울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경험의 반영이고, 나아가 태초의 새벽도 닭 울음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의 반영이다.²⁴⁾ 예고의 내용이 빛이기 때문에 닭은 태양의 새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닭의 존재 양상의 이중성, 즉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방식은 어둠과 광명을 경계하는 광명이 도래하기 전 새벽의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닭의 상징성은 원시 토탑에서 광명의 존재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서사시에 광명을 알리는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태양과의 관련성은 왕권과도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 신라 알영과 김알지의 탄생에서도 닭이 울어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는 원시 토탑적 사유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화소가 신라의 건국신화에 반영되었으며, 제주에서도 태초의 원형에서부터 간직하고 있던 화소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세계 창조신화의 핵심 신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주 창조, 신 창조, 인간 창조인데, 이 세 가지가 모든 창조 신화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²⁵⁾ 제주도의 경우는 우주 창조의 신화소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창조신화에서는 우주 창조시에 창조신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주의 창세 신화에서는 창조주로서의 ‘천지왕’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제주에서의 창조주도 원래는 이처럼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 작업에 뛰어 들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음양오행설이나 삼극론 등의 보편적 사상이 삼입되면서 원래의 창조 활동이 잊혀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자식 이름인 ‘天地王’ 역시 후대의 변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임금’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민족이 한자를 받아들여 쓰면서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처음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 고유어 이름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제주의 창세서사시에서의 천지개벽 화소는 창세서사시가 지닌 원시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중세 이후 한자의 영향이나, 중세 보편주의 문화의 조류에 영향을 받아 변이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2) 김현선, 위의 책, 251쪽, 강춘옥본 <생긔>.

23)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9쪽.

24) 허남훈,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제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22쪽.

25) 김현선, 「창조신화 연구서설」, 『세계의 창조 신화』, 신화아카데미, 2001, 19쪽.

제주에서의 창세 신화가 창조주의 역할이 분명하게 묘사되지 않은데 비하여 본토의 창세 신화는 창조주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함경도에서 채록한 자료의 한 대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한즉,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소아,
하늘은 북개꼭지처럼 도도라지고
땅은 네 귀에 구리 기둥을 세우고²⁶⁾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함께 탄생해서 하늘과 땅의 모습을 바로 잡았다고 했다. 원래 ‘미륵’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이다. 아마도 최초의 이름은 미륵이 아닌 우리 고유의 신격을 일컫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고 고대 삼국(고구려·백제·신라)으로부터 불교가 공인되면서 불교는 일반 민중들 속으로 파고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무속신의 이름이 불교식으로 변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중세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세적 변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본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혼돈의 상태로 보고 있다. 이 혼돈 상태를 바로 잡게 된 것은 ‘땅의 네 귀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우는’ 행위이다. 이 행위의 주체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륵의 탄생 이후, 천지가 분리된 점으로 봐서 미륵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할 수 있는 구리 기둥을 세웠다는 점으로 보아, 이 미륵이라는 신은 창조신이자 거대한 거인신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하늘은 “북개꼭지” 즉 가마솥의 뚜껑처럼 위로 솟게 하고, 땅에는 네 귀에 구리 기둥을 세웠다고 한 것이다. 즉 <김쌍돌본>의 서술은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이 창조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⁷⁾ 제주의 창조주 천지왕과 비교하면, 적극적인 창조주이자, 거대한 거인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륵의 창조신이자 거인신으로서의 면모는 그 외 본토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前述했다시피 ‘미륵’이라는 용어는 불교적 색채가 상당히 강한 이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 여러 ‘미륵’들이 곧 불교에서의 미륵 부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창조신이자 거인신의 성격을 지닌 미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제주와 달리 본토는 불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창조신의 이름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든 본토든 어느 곳이나 창세의 시절에는 하늘과 땅이 혼합되었다가 분리되었다고 하는 설정은 동일하다. 다만 분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는 미세한 편차가 확인된다.

서사시가 아주 오래전 민족 구성원들이 오랜 시기에 걸쳐 지어낸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옛날 우리 조상들은 태초의 우주는 혼돈의 세계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탄생은 혼돈에서 분리의 상태로 전환될 때 일어났으며, 이러한 분리를 가능하게 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창조에 개입하는 초월적 존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신으로 묘사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본토에서 드러나듯이 그 능력에 걸맞은 체구를 가진 거인신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

26)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230쪽, 김쌍돌본 <창세가>.

27) 서대석, 위의 논문, 8쪽.

나 제주의 경우 창조신으로서의 행위나, 거인신적인 면모가 소실되고, 창조신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내용으로 변모한 것이다. 또한 창조신의 명칭도 고유어 이름에서 한자식 이름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거인신의 이름이 변모된 점은 본토도 마찬가지로여서 본토 대부분 지역의 창세 신화에서는 미륵이라는 존재에 의한 창조가 이루어진다. 불교문화의 유입에 따른 중세적 수용이다. 결국 본토든 제주든 고유의 원시서사시적 모습에서 조금씩 중세적 변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비문학의 특성을 보여 주는 점이기도 하다.

2.2.3 天父地母의 결합과 부친탐색

<천지왕 본풀이>가 본토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색으로는 천부지모의 혼인 및 부친과의 이별, 부친을 탐색하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이중 천부지모의 결합에서는 천지왕이 우주적 혼돈을 정립하기 위해서 꿈을 얻고서 지상에 하강해서 총맹부인과 결합한다.

대소별왕이 태어날 때, 옥황상제 천지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일광 둘, 월광 둘, 해와 달을 둘 내보내니 인간 백성이 낮에는 해가 둘이 비쳐 뜨거워 낮에 천 명 죽게 되고, 밤엔 달도 둘을 내보내니 인간 백성 열고 추워 죽게 될 때에, 옥황상제 천지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해도 하나 먹어 보이고, 달도 하나 먹어 보이니, 총맹왕 총맹부인에게 천정배필을 맺고자 지국성으로 내려선다.²⁸⁾

우주의 혼돈은 자신이 창출했지만 해결책의 모색은 지상에서 찾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우주의 혼돈을 바로잡아 줄 지상의 영웅이 탄생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 대신 혼란을 바로 잡아 줄 인간 영웅의 탄생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인연을 맺고 나서 아들 형제 둔 것을 예언하며 두 아들의 이름을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지어준 후 하늘로 돌아가려 한다. 그리고 증거물을 주고 가라는 총맹부인의 요구에 박씨 두 개를 준 후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성숙한 대·소별왕 형제가 아버지를 찾자 총맹부인은 천지왕이 남기고 간 박씨를 내어 준다. 그리고 두 형제는 박씨를 심어 박씨 줄을 타고 하늘로 아버지를 찾아간다.

이러한 아들들의 부친 탐색은 지상에서 얻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고자 하는 신화소이다.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가 부친을 찾아서 다시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신화적 설정이 돋보인다. 이러한 신화소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위시해서 지상에 머물던 존재자가 하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우주 천문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흔하게 등장하는 신화소라 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신화소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국서사시인 <주몽신화>와 매우 유사하다. <주몽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가 지상의 여자인 유화부인과 만나 인연을 맺는데, 이는 천상의 천지왕이 지상의 총맹부인과 인연을 맺은 것과 유사하고, 동명왕의 아들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대·소별왕 형제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지왕의 아들로 등장한 대·소별왕 형제는 뒤에 이어지는 활을 쏘아 일월을 조정하는 대목에서 그 영웅적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줘 <주몽신화>에서의 주몽과 유리의 영웅적 성격과도 일치한다.

28)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6, 15쪽.

29) 김현선, 「한국 구전 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373쪽.

또한 우리의 고대 서사물에서 영웅은 고귀한 혈통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담’의 일정 부분이 이 화소들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늘이라는 고귀한 혈통과 아버지의 부재로 대변되는 상황, 그리고 아버지를 찾은 후 위대한 과업(일월조정)을 이루어내고, 각각 이승과 저승의 지배자가 된다는 설정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초기 무속적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이 화소들은 고대 영웅의 행위가 투영된 고대서사시적 요소를 갖춘 화소들인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전승되던 영웅 이야기가 어느 순간 제주의 창세서사시에 수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본토의 경우는 창세서사시의 원형이 유지되어 온 결과라고 해야 할지, 이러한 천부지모의 결합과 부친탐색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만본>에서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의 출생, 부친탐색이 들어 있어 제주와의 유사성을 보여 준다.

매화뜰 매화부인의 집이로소이다/ 당칠성 이르는 말씀, 말머리를 돌리어라
 매화뜰 당도하니
 (중략)
 당칠성 간 연후에, 그달부터 태기 있어
 (중략)
 먼저 난 이 전문이요, 뒤에 난이 후문이요
 (중략)
 흰 구름 잡아 타고, 천하궁을 나가서/ 아비를 찾을 적에, 당칠성이 하는 말씀이
 (중략)
 먼저 난 이 전문이는 대한민국을 지너먹고/ 뒤에 난이 후문이는 소한국을 지니실제³⁰⁾

여기서도 천상의 당칠성과 지상의 매화부인이 결연하여 천부지모의 형태를 보여 주고 이들 사이에서 탄생한 형제가 전문이·후문이인데 이들이 부친을 찾아가 대한민국·소한국의 통치자가 된다.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 출생이 제 1대와 제 2대로 배분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제 1대 천부지모와 제 2대 시조 출생은 무속신화는 물론 건국신화에서도 보이는데 <계석 본풀이>와 <주몽신화>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중만본>과 제주 창세서사시도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2.4 日月調定 화소에 드러난 원시와 고대적 성격

천지는 개벽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개벽된 천지에는 해와 달이 둘씩 있어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초목금수가 말을 하는가 하면 귀신과 사람의 구별이 없어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을 바로잡는 임무는 천지왕이 아닌 그 아들 세대로 넘어간다.

일월조정 화소는 우주적 혼돈의 정립과정이다. 해와 달이 둘씩 생겨나 인간세상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웠다고 하는 설정은 어디서나 공통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는 행위는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두 영웅의 몫이 된다.

그리고 판본에 따라 순서나 행위의 주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³¹⁾, 둘씩 있는 해와 달

3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352-355쪽. 이중만본 <시루말>.

31) 대·소별왕 형제가 같이 日月을 정리했다고도 하고, 인세차지 경쟁 이후 대별왕이 인간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으며 일월을 조정했다고도 한다.

때문에 인간세상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웠다고 하는 설정은 어느 판본이나 공통된다고 할 수 있는데 활을 쏘아 정리한다.

인간 세상으로 월광 돌이 비치고 일광 돌이 비치 인간 백성들이 살 수 없으니, 천 근 활 백 근 살을 받아 앞에 오는 햇님 하나는 두고 뒤에 오는 햇님 하나 쏘아 동해 바다에 던져 두고, 앞에 오는 달 하나 남겨 두고 뒤의 달은 서해 바다에 던져 버리니,...

이렇게 활을 쏘아 일월을 조정하는 행위는 본토의 일부 판본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며, 세계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시베리아, 알래스카, 중남미 등에 나타난다.³³⁾ 그러므로 제주서사시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월을 조정하여 천체 운행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천지창조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이 생겨난 내력을 풀이하는 원시서사시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창조신이 아닌 인간이 했다는 데서 이는 영웅서사시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고대 영웅의 영웅담적 요소가 삽입된 것이다. 이는 원시 창세서사시에 고대 영웅담이 첨가된 형태로 변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원래의 원시적 요소에 고대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³⁴⁾

이에 비해 본토의 예를 들어 보면

그때는 해도 돌이요, 달도 돌이요,
달 하나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 마련하고,
해 하나 떼어서 큰 별을 마련하고,
잔 별은 백성의 직성(直星)별을 마련하고,
큰 별은 임금과 대신별로 마련하고,
미륵님이 옷이 없어 짓짚는데, 감이 업서.³⁵⁾

라고 하는데 달과 해를 하나씩 떼어내어 별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이것 역시 일월조정 화소이다. 이러한 일월조정을 영웅이 했다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이고 이 자료에서는 직접 행위의 주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맥으로 보아 창조신 미륵이 일월조정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했듯이 일월조정은 천지창조에 수반되는 과정이다. 천지창조 이후 아직 불완전한 세상에 대하여 창조신 미륵이 마저 창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상이 이루어진 내력을 밝히는 창세서사시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웅을 등장시키지 않고 거인신인 창조신이 했다고 하여 원시서사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창조신으로서의 거인신은 단지 창조 작업만 수행할 뿐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당시인들이 해와 달과 별이 생긴 모습 자체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 자연현상 자체를 의인화한 거인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요소 또한 원시인의 사고방식을 나타

32)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6, 19쪽.

33) 김현선, 위의 책, 76쪽.

34) 조동일, 위의 책, 52-68쪽 참고.

35) 김현선, 위의 책, 230쪽, 김쌍돌본 <창세가>.

낸 원시 서사시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잔 별은 백성의 직성(直星)별을 마련하고, 큰 별은 님금과 대신별로 마련하고~”의 부분은 천지창조의 원시서사시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임금과 신하 백성의 구분은 원시단계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이러한 구분은 국가성립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체계가 좀 더 엄격하게 구분되는 현상은 고대를 지나 중세에 이르러서야 확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는 원시적 성격에 중세적 요소가 삽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토의 일월조정 화소 역시 제주도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변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본토 경기도 오산 지역에서 채록된 <이종만본>의 한 구절이다.

옛날 시절에는 달도 두 분이 돌으시고
해도 두 분이 돌으실제
철궁에 시뵈날 먹여 들고
해 하나 쏘아 제석궁에 걸어두고
달 하나 쏘아 내어 명모궁에 걸어두고³⁶⁾

서사시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나, 제주지역의 서사시와 아주 비슷한 점을 지니고 있는데, 복수인 해와 달을 정리함에 있어 경기도 오산과 제주에서는 두 형제가 활을 쏘아 없애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고대 영웅담의 요소가 삽입된 고대적 변이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와 경기도 오산의 창세서사시에서의 일월조정 화소에는 고대 영웅담의 요소가 반영된 고대서사시적 요소를 지니 그 친연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본토의 그 외 지역에서는 일월조정을 의인화된 창조신이 했다고 하여 그 원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화적 사고에서는 자연계·인문계의 모든 현상들이 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인간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연법적 과학 방법이 아닌 신화적 사고법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³⁷⁾ 오랜 옛날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당대인들이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한 결과가 창세서사시에 반영되어 인간들을 더워서 죽게 만들고 추워서 죽게 만들던 현상을 영웅이 해결해 주었다고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2.2.5 人世차지 경쟁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부자 상봉과 일월조정 이후 대·소별왕 형제들 간에 인세차지 경쟁이 벌어진다. 인세차지 경쟁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담이다. 천지왕이 대별왕에게 이승을 소별왕에게 저승을 각기 다스리도록 했으나, 소별왕이 이승을 탐내서 이승의 통치권을 빼앗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각자 부여된 판도를 거부하고 더 좋다고 판단되는 이승에 욕심을 내는 것이 경쟁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본래 부여된 신직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는다는 설정이 주목되며, 이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이 신화소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세차지의 경쟁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는 시합이

36) 김현선, 위의 책, 이종만본 <시루말>.

37) 안진태, 『신화학강의』, 열린책들, 2001, 48쪽.

다. 이는 본토 어느 지역에서나 비교적 동일한 양상으로 전승되어 창세서사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승과 저승은 곧 삶과 죽음의 공간이다. 그런데 두 신은 모두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이 경쟁이 의미하는 바는 삶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경쟁이며 이는 곧 삶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신화형성집단의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³⁸⁾ 그리고 삶의 세계인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했다는 점에서, 이 시합은 결국 삶의 세계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³⁹⁾ 꽃이 무속에서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갖는⁴⁰⁾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재생과 부활을 관장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꽃으로 대표되는 식물의 재생과 부활을 통한 풍요와 생산을 관장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겨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식물의 풍요와 생산이 중요했던 농경인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풍요와 생산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반영된 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일종의 신들의 ‘통과의례’인 것이다.

이 경쟁에서 “형이 심은 꽃은 번성꽃이 되고, 아우가 심은 꽃은 시드는 꽃이 되었구나.⁴¹⁾”라고 하여 형인 대별왕이 이기는 듯이 보인다. ‘번성꽃’은 삶을 뜻하고, ‘시드는 꽃’은 죽음을 뜻한다고 할 때 삶의 공간인 이승을 차지하는 존재는 대별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별왕은 형이 잠든 사이 꽃을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를 씀으로서 자신이 이승을 차지한다. 이는 본토에서의 ‘미륵’과 ‘석가’의 대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륵님 무릎위에 / 모란꽃이 피어 올랐구나

석가가 중등사리(중둥이) 꺾어다가/ 저 무릎에 꽃았다.

(중략)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중략)

너 세월이 될라치면

가문마다 기생나고/ 가문마다 과부나고

가문마다 무당나고/ 가문마다 역적나고

(중략)

세월이 그런즉 말세가 된다.⁴²⁾

미륵이 잠든 사이 석가가 꽃을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석가가 이승을 차지한 결과 인간 세상은 ‘말세’가 되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인도 있는 반면 악인도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들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또한 역사상 완벽히 질서가 유지되고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았던 사회제도라는 것은 古來로부터 존재한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선악의 양면성과 제도의 불가피한 불완전성은 인간 세상에 다소간의 혼란과 무질서, 악의 여지 등을 초래하게 된다. 결

38) 이수자, 『큰 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336쪽.

39) 이수자, 위의 책, 337쪽.

40)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집, 백록어문학회, 1997, 9쪽.

41)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1쪽.

42) 김현선, 위의 책, 235쪽, 김쌍돌본 <창세가>.

국 신들이 처음 이 세상을 나눌 때부터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불합리하고 혼란스럽다는 설정은, 사회의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면을 설명하기 위한 신화소인 동시에 원래 인간세상은 그러한 불합리를 지닐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현실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천지왕본풀이>에는

형인 대별왕이 말을 하되,

“설운 아우 소별왕아, 이승법은 차지하여 들어서도 좋은데, 인간 세상에는 살인 역적이 많을 것이다. 도둑도 많을 것이다. 남자는 열다섯 십오세가 되면 자기 아내는 놓아두고 남의 아내 엿보는 자 많을 것이다. 여자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면 자기 남편 놓아두고 남의 남편 엿보는 자 많을 것이다.”

그런 법을 마련하고,

“나는 저승법을 마련하겠다. 저승법은 맑고 청량(淸朗)한 법이다.”⁴³⁾

라고 하여, 현실의 세상은 험악하고 살기 힘들지만 죽어 저승에 가면 ‘맑고 청량한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첨가하고 있다.

본토에서도 각각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신이 ‘석가’와 ‘미륵’이라고 하여 그러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의 미륵은 흔히 미래불이고 석가는 현세불로 인식된다. 불교 사상이 민간에까지 전파된 미륵 신앙에 의하면 미륵부처님은 먼 장래에 출현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그 때 이 세상은 樂土로 변하고 사람의 수명은 8만여 세나 된다고 한다. 또한 미륵부처님은 석가부처님이 미처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3회에 걸쳐 龍華法會로 모두 제도해 준다고 한다. 일반 민중들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이 미륵 신앙 속에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달픈 현실 세계의 삶이 끝나고 가게 되는 저승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을 본토에서는 미륵이라고 함으로써 내세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현 인간 세계의 혼란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천지개벽 직후의 인간 세상에는 초목금수와 인간, 그리고 귀신의 구별이 없으며, 인간 세상은 온갖 악이 들끓고 있었다고 한다. 이 혼란은 대별왕이 수습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연의 혼란만 수습하여 초목금수, 인간과 귀신의 구별만 했지, 세상의 혼란은 수습해주지 않았다.

인세차지 경쟁에서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부도덕과 혼란스러운 면을 수용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과 다른 동식물과의 차이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며, 인간중심적인 사고로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행세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세차지의 화소는 천지창조와 수반되는 행위라 할 때 여기서도 창세서사시로서의 원시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세차지 경쟁에서의 속임수가 문제가 되어 인간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설정은, 선악을 구별하는 사고라 할 수 있으며, 세상 모든 원리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인과적 사고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제주와 본토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인세차지 화소는 현실이 고달프고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꽃가꾸기 시험 이전에 수수계끼 경쟁이 들어 있는데 이는 본토의 창세서사시에는 없는 내용으로 제주 창세서사시의

43)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3쪽.

특색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3 屍體化生과 惡人 징치

2.3.1 屍體化生

제주의 서사시들 가운데에는 시체화생의 화소를 보여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화소들은 개별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문전본풀이>의 경우를 들면, 악행을 일삼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변소로 도망쳐 목을 매어 죽고, 변소의 신인 측도 부인이 되는데 그 시체를 일곱 형제가 달려들어 찢으니, 두 다리는 드딜팡⁴⁴⁾이 되고, 머리는 돼지 먹이통, 머리털은 해초, 입은 술치, 손톱·발톱은 쇠굽 벗·돌굽 벗⁴⁵⁾, 배꼽은 굽벥이, 항문은 전복이 되었으며, 육신은 뺏아서 날리니 각다귀·모기가 되었다⁴⁶⁾고 하고 있다. 또한 <차사본풀이>에서도 과양생 부부 시신의 뼈 가루에서 ‘각다귀, 모기가 생겼다⁴⁷⁾’고 하고 있다.

이는 본토에서의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의 골이나 간을 먹어야 된다는 처방을 듣고 효자가 사람을 죽여 아버지를 살린 후 그 자리에 가 보니 시체를 묻었던 자리에서 밀이 자라났는데, 이 밀을 빻어 술을 만들었다는 설화에서 보이는 시체화생 화소와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체화생의 화소는 개별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원시적 단계의 사고를 보여 준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후 각각의 개별 사물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원시적 관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화소들은 원시서사시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창세서사가 만들어질 당시 창세와 더불어 만물의 형성을 다루는 화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술한 중국의 창세신화에서도 반고의 신체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시체화생이 존재하는데, 누에와 곡식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호계쯔히메(大氣都比賣)는 코와 입, 그리고 엉덩이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꼬집어내어,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바쳤을 때 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速須佐之男命)가 그 모습을 엿보고, 음식을 더럽힌 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오호계쯔히메노가미(大氣都比賣神)를 죽이고 말았다. 그런데 살해당한 신의 몸에서 생겨난 물건은 머리에서 누에가 생겼고, 두 눈에서는 벼씨가 생겨났으며, 두 귀에서는 조가 생겼고, 코에서는 팔이 생겨났으며, 음부에서는 보리가 생겨났고, 엉덩이에서는 콩이 생겨났다.⁴⁸⁾

결국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공통적으로 인간이나, 신의 신체로부터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시체화생 화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화소는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면

44) 용변 볼 때 디디고 앉는 돌.

45) 딱지 조개의 종류.

46)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27, 229쪽.

47)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165쪽.

48) 노성환 역주, 『古事記』, 예전사, 1987, 92쪽.

서 더불어 우주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신화소로서 창세와 더불어 나타날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시아만의 독특한 관념이 아니라 거의 세계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관념⁴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서사시에서 나타나는 시체화생 화소는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보통 악인들이 징치를 받은 후 그 시체에서 사물이 기원하였다는 설정이 그렇다. <문전본풀이>에서의 악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몸에서 제주의 주요 해산물과 제주 화장실 문화의 특성을 보여 주는 물건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사물 모양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화소에는 악인은 죽어서도 고통을 받는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죽은 시체조차도 화장실에 설치되어 온갖 악취를 감당해야만 하는 신세이고, 또 그 시체들은 마디마디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씹어 먹히는 신세이다. 죽어서까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양생 부부의 경우는 “살아 있던 때도 남의 피만 빨아먹자고 하던 과양생이 부부간은 죽어도 남의 피를 빨아 먹자고 각다귀, 모기 몸으로 환생합니다.⁵⁰⁾”고 하며 그들 부부의 악행이 도저히 사람으로 다시 환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인간을 괴롭히는 모기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밖에 창세서사시인 <천지왕본풀이>에도 시체화생 화소가 보인다.

“수명장자 딸은 자루가 부러진 숟가락을 항문에 찔러 팔벌레로 변신시키고 수명장자 아들들은 마소물을 안 먹였기에 술개로 환생시켜 부리가 꼬부라지게 하여 비가 온 후에는 날개 물이나 훑아먹게 하라.”⁵¹⁾

수명장자의 아들들은 평소에 마소에게 물을 먹여 오라고 하면 말발굽에 오줌을 누어 두고 먹여 왔다고 속이고, 딸은 일꾼들에게 밥을 주면서 자신은 좋은 장을 먹고 썩은 장은 일꾼들에게 주는 악행을 저질러 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팔벌레와 술개로 환생하여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악행을 저지른 악인들은 죽은 후에도 그 징벌을 계속 받게 되니, 평소 행실을 조심하라는 교훈적 성격이 담겨 있는 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악인들은 징벌을 받게 된다는 당대의 소박한 도덕관념과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시체화생 화소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2.3.2 惡人懲治의 원시적 사유

<천지왕본풀이>에는 천지 창조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⁵²⁾

“괘씸하고 괘씸하구나. 수명장자가 가난한 인간들이 쌀을 줌 꺾 달라 하면 백모래를 섞어 주거나 흑모래를 섞어 주고, 큰 말로 받아다가 작은 말로 팔아 부자되니.”

“수명장자 딸들은 가난한 인간들에게 김을 매어 달라 하여 일을 하고 나면 좋은 장은 자기네가 먹고,

49) 김현자, 「창조신화를 통해서 본 고대 중국인들의 우주 및 우주적 인간」, 『세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 2001, 202쪽.

50)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165쪽.

51)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17쪽.

52) 판본에 따라서는 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씩은 장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명장자 아들들은 마소에게 물을 먹여 오라고 하면 말발굽에 오줌을 누어 두고 마소에게 물을 먹여 왔다고 하면서 삽니다.”

“꽤 씹하다. 수명장자 꽤 씹하구나.”

옥황상제 천지왕이,

“벼락장군 내보내라. 벼락사자 내보내라. 우레장군 내보내라. 우레사자 내보내라. 화덕진군 화덕장군 내보내라.”

수명장자 집에 정낭을 담아 놓고 불을 질러간다.⁵³⁾

악행을 일삼는 수명장자를 징벌하는 내용이다. 수명장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면서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재산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된 인간형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이 천지왕에게 알려지면서 천지왕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원시서사시의 성격에 민중들의 도덕관이 반영되어 있다.

수명장자는 제주 전통 가옥의 대문인 ‘정낭’이 닫힌 상태에서 우레와 벼락을 맞아 집이 불타게 된다는 내용이 우레와 벼락을 의인화한 우레장군·우레사자, 벼락장군·벼락사자가 천지왕의 명령을 받아 징벌을 행한다는 내용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화하는 표현은 원시서사시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한 징벌 화소는 창세서사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악행을 일삼으면 천상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적 요소가 강한 화소로서 창세서사시에서 전승될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 교훈을 담은 교훈담적 요소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화소는 <천지왕본풀이>가 창세서사시로 전승되다가 당대 민중들의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소박한 도덕관을 수용하여 추가된 내용으로 보인다. 즉 도덕관의 삽입으로 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풀어내는 점에서 원시서사시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원시적 사고에 당대의 도덕관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훈담의 성격은 본토의 <창세가>에서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제주의 창세서사시가 지닌 독특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명장자의 악을 징치하는 것은 천지개벽의 혼돈에서 질서로 회귀하려는 의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명장자의 악을 징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간세상 전체의 악을 징치하는 데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지금도 악이 창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화는 패배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혼돈이 질서로, 대립이 조화로 수렴되듯이 언젠가는 인간세상의 악의 징치도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⁵⁴⁾

<이공본풀이>에서도 할락궁이의 어머니 원강암이를 학대했던 재인장자는 결국, 징벌을 받게 되고, <차사본풀이>에서도 버무왕 3형제를 부당하게 죽인 과양생 부부 역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특히 <차사본풀이>의 경우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매우 극적인데, 버무왕의 3형제가 그들을 죽인 과양생의 아들들로 환생한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 자식 키우는 재미를 한껏 누리게 한 후 과거에 급제하여, 그 호강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급사함으로서 그들 부부를 고통에 빠지게 한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남의 자식을 죽여 그

53)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15, 17쪽.

54) 허남춘, 위의 논문, 25쪽.

들의 부모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가해자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해봐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실이 들통나면서 처벌을 받게 되니 이중의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문전본풀이>에서도 남선비의 재산을 탕진시키고, 부인 여산부인을 죽인 뒤 어머니 행세를 하며 아들 7형제까지 죽이려는 악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등장한다. 그러나 거둬진 악행을 피하던 그녀는 막내 ‘늑디성’의 징벌을 받아 죽고, 측간 신이 된다.

이러한 신화의 화소들 속에는 죄를 지으면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는 논리가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제주인들의 의식 속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도덕적 관념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무가란 신에 대한 제의에서 부르던 노래였다. 제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일종의 축제이자,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리에서 도덕적 교훈이 담긴 내용을 무가에 넣어 부름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향상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선징악의 관념은 전국의 설화 어디에서나 흔히 보이는 모습이며, 설화에 바탕을 둔 고전 소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의식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던 단계를 벗어나 사회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규범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 기본적인 도덕질서에 대한 관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악한 존재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신화 속에 반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즉, 문학 속에 그들의 도덕관념을 반영했다 볼 수 있다. 물론 고대 이전의 도덕관념은 엄격한 도덕관념을 유지했던 중세에 비해 소박하고 단순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박하고 단순한 도덕관념은 인간들의 사상 발전 단계에 따라 체계를 갖추게 되어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소박하나마 고대 이전부터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박한 도덕관이 악한 존재는 신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화소를 신화 속에 삽입하게 했을 것이다. 전술했던 시체화생 화소 같은 경우도 제주도의 경우 악인들이 징벌을 받아 그 시체에서 여러 사물들이 나왔다는 내용이 많다. 이는 후대의 변형일 수도 있을 것이나 악인들은 징벌을 받는다는 소박한 당대인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결국 악을 경계하는 마음은 그 기원을 고대 이전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나쁜 짓을 한 동물이나 인간은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많은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들 내용들이 모두 고대나 중세 이후 도덕관이 완전히 확립된 이후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제주 서사무가의 고대성

3.1 건국서사시-三姓神話와 케네깃당 본풀이, 송당 본향당 본풀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들은 모두 제각각의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건국 신화들은 모두 역사서에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고대부터 耽羅, 毛羅, 耽牟羅, 耽沒羅, 涉牟羅, 涉羅, 擔羅, 屯羅, 毛羅 등의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 이들 여러 고대 명칭들 가운데 일반인들에게까지 가장 친숙한 명칭은 아무래도 탐라가 아닐까 한다.

제주도하면 사람들은 흔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섬, 관광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 해녀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대국가를 형성하여, 약 1,000여 년간 독립국가로서 존속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로 조금씩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탐라국은 고려 중엽까지 존속하다가 1105년(고려 숙종 10년)에 고려 정부의 행정 체계에 편입되었고, 1211년(고려, 희종 7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주라는 이름으로 개칭된다.

이러한 탐라국의 건국신화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신화>이다. <삼성신화>는 다음과 같다.

古記에 이르기를 태초(太初)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삼신인(三神人)이 땅-主山의 북쪽 기슭에 움이 있어 모흥(毛興)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그 땅이다. -으로부터 솟아 나왔다.

말이는 양을나요, 둘째는 고을나요, 셋째를 부을나라고 했는데⁵⁵⁾, 이들 세 사람은 궁벽한 곳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하루는 자니(紫泥)로 봉한 목함(木函)이 동해로부터 떠나서 해안에 머무르는 것이 보이므로, 삼신은 나아가서 목함을 열어 보았다. 그 안에는 돌로 만들어진 함이 있었으며,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또 돌로 된 함을 여니, 그 속에는는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삼신과 망아지와 송아지, 오곡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⁵⁶⁾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이 세 따님을 낳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에 신자 삼신이 강림하여 바야흐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므로 이에 신에게 명하여 삼녀를 모시고 오게 하였으니, 마땅히 배필로 맞으시어 대업을 이루소서.”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삼신인이 나이 차례로 나누어 장가들었으며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한 곳을 선택하여 화살을 쏘아 주거지를 정하였으니, 양을나의 주거지를 제일도(第一都)라 하고, 고을나의 주거지를 제이도(第二都)라 하며, 부을나의 주거지를 제삼도(第三都)라 하였다. 이로부터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우마를 기르게 되니, 날로 살림이 부유해져 갔다.⁵⁷⁾

55)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순서는 기록에 따라 다르다.

56) 기록에 따라서는 ‘동해 벽랑국(碧浪國)’에서 왔다고도 한다.

57) 『高麗史』地理志 濟州.

이런 삼성신화의 내용을 보면 현용준의 견해처럼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동시에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는 고랑부 세 씨족 시조들의 탄생과 혼담을 담고 있는 시조신화로서의 모습도 아울러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그러나 전경수는 삼성신화는 탐라부족신화이고 성씨의 시조신화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므로 을나신화로 명명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⁵⁹⁾

고대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는 무속 서사시의 형태로 남아 있지는 않다. 최초 형성 당시부터 문헌에 기록되었는지 무속 서사시의 형태였는지는 남아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확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중종(재위: 1506-1544)대까지는 구전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제주목사 李命俊이 정조 10년(1786)에 올린 啓文 속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전략) 삼성시조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당을 세우고 향사한 일이 없었으며, 다만 광양당이 있어 무당들이 빌고 굿하는 장소였는데, 가정 병술년(중종 21년, 1526)에 목사 李壽童이 비로소 모흥혈 옆에 단을 쌓고 삼을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매년 11월에 제를 올리게 하였습니다.⁶⁰⁾

이 기록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수동 목사가 축담했던 중종 21년(1526)까지는 삼성시조가 광양당에서 무속제의로 모셔졌던 것을 알 수가 있다.⁶¹⁾ 이에 대해 현용준은 “삼을나신도 광양당신과 같은 당신일 것이며, 한라산계, 또는 송당계의 당신이라 추단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삼성신화도 당신화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⁶²⁾”라고 하였었다. 처음에는 본풀이의 형식을 빌려 탐라국의 국가적인 제례 등에서 불렸을 테지만, 제례가 유교식 제사로 바뀌면서 이 본풀이는 더 이상 三神人에 대한 제의에서 불려지지 못하면서 차차 소멸하여 간 것으로 본다. 고대 국가에서 신에 대한 제의는 국가적 단위의 제의든 지역 단위의 제의든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행사라면 국가적으로 통일된 양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본풀이는 오래 전부터 신에 대한 제의에서 불려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제주의 기원인 탐라국 시절부터의 형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내용이나 형식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이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본풀이들이 원형을 어느 정도는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의 본풀이는 오래 전부터의 제의에서 불려지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에서 받아들여지던 제의에서 삼신인에 대한 서사시가 본풀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원래 신화는 신에 대한 제전에서 전승된다. 따라서 신에 대한 제전이 없어지면 신화 또한 전승할 터전을 잃게 되고 구연 기회를 상실하면서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⁶³⁾ 결국 본풀이의 형식으로 전승되던 <삼성신화>도 더 이상 구연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조금씩 소멸해 가고, 현재 문헌에 기록된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8)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45쪽.

59) 전경수, 「제주연구와 용어의 탈식민지화」,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 1992, 483-487쪽.

60) 『耽羅星主遺事』, 高氏宗門會總本部, 1979, 632쪽.

61) 장주근,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탐라문화』 제1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02쪽.

62) 현용준, 「당국의 儒式化와 삼성신화」, 제주도 14호, 제주도, 1964, 144쪽.

63) 서대석, 위의 논문, 10쪽.

그런데 삼신인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이른바 地中湧出형의 신화라 할 수 있다. 원래 우리의 건국신화들은 대부분 천손강림형의 신화이다. <단군신화>라든가 <주몽신화>에서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환웅과 해모수에 의해 주인공인 단군과 주몽이 탄생한다. 또한 <수로신화>나 <혁거세신화>에서도 수로왕과 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탄생한다. 한반도의 남단에 있는 섬인 제주도가 본토와는 다르게 지중용출형인 점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가 화산의 폭발로 생긴 섬이기에 자연 생성의 성격을 신화에 반영한 때문일 것이다.⁶⁴⁾ 또한 한국에서는 <삼성신화>에서만 보이지만 ‘일본의 구주 남부나, 유구, 대만 쪽에서도 꽤 많이 발견된다⁶⁵⁾’고 한다.

인간이 대지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널리 유포된 신앙으로 많은 언어에서 이 같이 일컬어진다. 아이는 땅의 밑바닥, 동혈, 동굴, 협곡 또는 샘과 작은 강에서 ‘온다고’ 믿었다.⁶⁶⁾ 이는 대지의 출산력과 관계된 신앙으로 지중용출형 신화 역시 대지의 출산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중용출형의 신화에 대해 김화경은 “지중용출형 신화는 大地母 사상과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地母神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성립된 신들 가운데 하나이며 고고학계에서의 발굴의 성과로 말미암아, 이미 구석기 시대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풍만한 몸매의 비너스 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모신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었고, 나아가서는 그녀에 연루된 신화도 창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지중용출형 신화는 어느 의미에서 신화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⁶⁷⁾”고 하였다. 지중용출형이 대지모 사상과 관계가 있다는 점은 납득할 만한 주장이다. 여성신이자 지모신에 대한 신앙은 모계사회의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 발전 단계에서 모계사회의 존재는 널리 알려진 통설로서 지모신신앙은 모계사회에서 형성된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천손강림형과 그 근원을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중용출형이 신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 중의 하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최근 제주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점과 연결하여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할 수 있다.

또한 이 신화에서는 세 성씨의 시조들이 외부에서 온 처녀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적혀 있다. 즉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길렀으며,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화적 기술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로서는 문화의 전래가 불가피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땅에서 태어난, 세 성씨의 시조들은 “처음에 궁벽한 곳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신화를 가진 집단이 수렵이나 유목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⁶⁸⁾ 그리고 세 공주가 가져온 오곡의 씨앗을 뿌렸다는 대목은 도래해 온 세 공주는 농경문화를 가진 집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64)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43쪽.

65)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71쪽.

66) 안진태, 위의 책, 139쪽.

67)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39-40쪽 참고.

68) 김화경, 위의 책, 48쪽.

이러한 지중용출형의 신화는 제주 무속 서사시에도 존재하는데, <퀘네깃당 본풀이>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가운데 쪽에 좌정한 소천국은 알송당 고부니마루에서 솟아나고, 백주또마누라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인간 세상에 탄생하여 천기를 짚어 떠 보니 천상배필 될 짝이 조선국 제주도 송당리에 탄생하여 사는 듯하니, 백주또가 신랑감을 찾아 제주도로 들어와 송당리를 찾아가서 소천국을 상면하여 백년가약을 맺습디다.

부부는 아들 5형제를 낳고 여섯째를 포태중인 때 백주또가 말씀하되,
“소천국님아 아기는 이렇게 많이 탄생하는데 놀아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농사를 지으십시오.”

부인의 말에 소천국은 오봉이굴왓을 돌아보니 뱀씨도 아홉 섬지기 피씨도 아홉 섬지거나 되는 넓은 밭이 있으니, 소를 몰고 쟁기를 지워 소천국이 밭을 잡디다.⁶⁹⁾

이 신화는 <삼성신화>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자료로서, 소천국과 백주또 모두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땅에서 솟은 두 존재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땅에서 솟은 두 신들 중 여성신이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래해 왔다는 설정은 <삼성신화>의 삼공주가 도래해 온 것과 유사성을 보이는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삼신인이 사냥을 하며 살았다는 점에서 수렵문화적 면모를 찾을 수 있고, 소천국이 백주또와 갈라 서게 되자, “배운 것이 본래 사냥질이라 총열이 바른 마상총에 귀약통, 낱날개를 둘러매고 산천에 올라가서 정동칼칫 딸을 만나 첩으로 삼아 고기를 삶아 먹고 살았다⁷⁰⁾”는 대목에서 그의 수렵신적인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삼공주가 도래해 올 때 오곡 종자를 가져온 점에서 삼공주의 농경문화적 성격을 알 수 있고, 백주또는 농사 짓기를 남편에게 권장하는 주체로서 농경을 주관하고 풍요를 담당하는 농경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¹⁾ 반면 땅에서 솟은 신이한 존재가 <퀘네깃당 본풀이>에서는 남녀신 모두인데 비하여 <삼성신화>에서는 남성인 삼신인만 땅에서 솟은 신이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대의 남성중심적 사고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일찍이 현용준은 제주도의 무신들은 그 제물에 따라 米食神과 肉食神으로 나눌 수 있음을 지적하며, <퀘네깃당 본풀이>의 신이 제의를 받을 때 제물로 돼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러한 육식신과 미식신은 각각 수렵문화 내지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소산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⁷²⁾

그런데 <퀘네깃당 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이 <송당 본향당 본풀이>에서도 확인된다.

부인님은 아기를 기르고, 소천국은 사냥질을 했다.
산돼지고기 궁작노루를 잡아다가 아기를 먹여 살리고,
소천국대감이 백주할망과 배필이 되니,
딸만 아기를 여덟을 배었다.
이 아기를 낳아 놓을 적에 백주할망이 말을 하되,
“우리가 이 아기를 키우려 하면 사냥질로는 못사니 농사를 지읍시다⁷³⁾.”

69)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319쪽.

70)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321쪽.

71) 김화경, 위의 책, 50쪽.

72)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제물과 신」, 『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6.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렵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농사를 권유하는 쪽은 부인이다. <퀘네깃당 본풀이>에서와 같이 남신은 수렵문화적인 면모를 보이고 여신은 농경문화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들은 전술하대로 <삼성신화>에서 삼신인들이 수렵생활을 하다 세 공주가 가져온 오곡종자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삼신인들이 땅에서 솟아난 것과 퀘네깃당이나 송당에서의 소천국이 땅에서 솟아난 것도 이들 이야기들의 계열이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 개의 이야기들에는 공통적으로 함에 실려 바다를 건너 표착하는 화소들이 들어 있는 점도 확인된다. <삼성신화>에서도 세 공주들이 석함에 실려 표착하여, 삼신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는데, <송당 본향당 본풀이>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무쇠철갑이 올라 오는 것을 보고,
“네가 귀신이나 산 사람이나”하고 물으니,
무쇠철갑 속에서 소리가 나,
“내가 귀신이면 이런 데 올 수 있겠습니까, 산 사람입니다.”
무쇠철갑을 열어보니,
아들 애기 일곱을 낳은 예쁜 백주할망이 있었다.
소천국은 백주할망 손을 잡고,
“나와 같이 살자”하고 송당으로 올라갔다.⁷⁴⁾

백주할망이 무쇠철갑에 실려 바다를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소천국이 구출해 아내가 되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백주할망이 이미 아들 일곱을 낳아 데리고 왔다는 점이 특이하다. 백주할망이 처녀인 채 임신했으므로 부모가 노해 무쇠철갑에 실어 떠내려보냈다는 내용이 그 앞에 설명되어 있다.

백주할망의 부모가 딸을 무쇠철갑에 실어 보냈다는 것은 신라 건국 신화 중의 하나인 탈해 신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신화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주할망의 자식 또한 그런 식으로 떠내려보낸다. 단, <퀘네깃당 본풀이>에서는 땅에서 솟아난 백주또가 스스로 소천국을 찾아왔다고⁷⁵⁾ 하여 다른 두 이야기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후의 이야기들은 본풀이들에만 있고, <삼성신화>에서는 표착해 온 공주들과 혼인하여 그 후 점점 번성했다고만 하고 있다. 건국신화치고는 뭔가 허전한 느낌인데, 유사한 화소들을 지닌 본풀이들에서는 고대 영웅다운 모험담이 들어 있어 흥미를 끈다.

주인공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례하게 굴었다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 그리하여 무쇠철갑이나 무쇠석갑에 넣어 바다에 버리게 된다. 보통 ‘영웅의 일생’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흔한 예이다. 어려서 버림받아 죽을 고비에 이르는 시련을 겪고 살아나 그 시련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영웅들의 운명인 것이다.

73) 진성기, 위의 책, 409-410쪽 참고.

현용준·현승환의 『제주도 무가』에는 같은 내용의 본풀이 중 대표로 <내왓당 천즈또마누라본풀이>가 실려 있다. 위의 자료들에 의하면 내왓당은 제주시 소재 신당이고, 송당 본향당은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신당이라고 한다.

74) 진성기, 위의 책, 409쪽 참고.

75) 판본에 따라서는 백주또와 소천국이 부부로만 나올 뿐, 백주또가 땅에서 솟아나 제주로 찾아왔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성기, 위의 책 371-381쪽 참고.

주인공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자가 된다. 용궁에 표착해 용왕의 사위가 되고, 그 엄청난 식성으로 쫓겨나, 더 먼 곳으로 가서 각각 머리가 둘·셋·넷 달린 괴물들을 퇴치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달아나 당신이 된다. 그리고 송곡성은 한라 영산의 신이 되고, 케네깃또는 김녕의 당신이 된다. 여기에 대해 조동일은 통치자의 지배권이 교체된 것으로 보고 효성 같은 덕목은 돌보지 않고 용맹을 자랑하는 고대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였다.⁷⁶⁾ 고대 영웅의 모습이 투영된 고대 서사시적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원래 한반도의 건국 신화에서는 주인공의 탄생 모티프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즉, 비정상적인 탄생을 통해 주인공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주인공은 비정상적인 탄생에 걸맞게 비범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런 인물이 나라를 건국함으로써 그 왕권의 신성성과 정통성을 강조한다. 한 왕조의 건국을 알리는 건국서사시는 그 자체가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사회에서 신성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건국 신화들에서는 나라를 건국함에 있어 투쟁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물려받고 평화롭게 건국하여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보인다. 해부루가 가섭원이라는 곳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해모수는 별다른 투쟁 없이도 북부여를 건국하며, 송양은 주몽과의 재주 겨루기에서 패하자 순순히 나라를 주몽에게 양도한다.⁷⁷⁾ 또한 신라의 경우에서도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왕위에 오를 존재로 만들어져 토착 세력의 아무런 반발 없이 왕위에 오르고, 수로왕 역시 왕위에 오르는 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삼국신화의 경우도 건국에 있어 큰 투쟁 과정 없이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신화들은 모두 문헌신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史書에 기록된 이런 신화들의 이면에는 또 다른 투쟁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해모수는 주몽의 아버지로서, 『삼국사기』에는 단지 해부루가 가섭원으로 옮긴 후 북부여를 세웠고, 주몽의 어머니 유화와 부모 허락 없이 혼인을 맺고 하늘로 올라갔다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비교적 평화로운 내용의 『삼국사기』에 비하여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는 해모수와 유화의 아버지 하백과의 도술 경쟁이 묘사되어 있다.

君是上帝胤 那대가 상제의 아들이라면 / 神變請可試 신통한 변화를 시험하여 보자
 漣漪碧波中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속에 / 河伯化作鯉 하백이 변화하여 잉어가 되니
 王尋變爲鱸 왕⁷⁸⁾이 변화하여 수달이 되어 / 立捕不待跬 몇 걸음 못 가서 곧 잡았다
 又復生兩翼 또다시 두 날개가 나서 / 翩然化爲雉 꿩이 되어 훌쩍 날아가니
 王又化神鷹 왕이 또 신령한 매가 되어 / 博擊何大驚 쫓아가 치는 것이 어찌 그리 날쌌는가
 彼爲鹿而走 저편이 사슴이 되어 달아나면 / 我爲豺而趨⁷⁹⁾ 이편은 승냥이가 되어 쫓았다

또한 주몽의 건국 초기 비류국 송양과의 갈등은 『삼국사기』에서는 “그와 더불어 말다툼

76) 조동일, 위의 책, 69쪽.

7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聖王條.
 주몽과 송양의 재주 겨루기는 <東明王篇>에 자세히 나와 있다.

78) 해모수를 가리킨다.

79)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하고 또 서로 활을 쏘아 재능을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내지 못하였다⁸⁰⁾.”고 하였고 그 이듬해 바로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 매우 평화적인 대결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 자세한 갈등 양상은 <동명왕편>에 보인다.

咄哉沸流王 애달프다 비류왕이여 / 何奈不自揆 어찌서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苦矜仙人後 선인의 후예인 것만 굳이 자궁하고 / 未識帝孫貴 천제의 손자 존귀함을 알지 못하였나
 徒欲爲附庸 한갓 부용국으로 삼으려 하여 / 出語不慎蕙 말하는 데 삼가거나 겁내지 않네
 未中畫鹿臍 그림 사슴의 배꼽도 맞히지 못하고 / 驚我倒玉指 옥가락지 깨는 것에 놀랐다
 來觀鼓角變 와서 고각이 변색한 것을 보고 / 不敢稱我器 감히 내 기물이라 말하지 못하였다
 來觀屋柱故 집 기둥이 목은 것을 와서 보고 / 咋舌還自愧 말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워했다
 東明西狩時 동명왕이 서쪽으로 순수할 때 / 偶獲雪色麕 우연히 눈빛 고라니를 얻었다
 倒懸蟹原上 해원 위에 거꾸로 달아매고 / 敢自呪而謂 감히 스스로 저주하기를
 天不雨沸流 하늘이 비류에 비를 내려 / 漂沒其都鄙 그 도성과 변방을 표몰시키지 않으면
 我固不汝放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 汝可助我慣 너는 내 분함을 풀어도
 鹿鳴聲甚哀 사슴의 우는 소리 심히 슬퍼 / 上徹天之耳 위로 천제의 귀에 사무쳤다
 霖雨注七日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 霏若傾淮泗 주룩주룩 회수(淮水) 사수(泗水)를 넘쳐나듯
 松讓甚憂懼 송양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 沿流謾橫葦 흐름을 따라 부질없이 갈대 밧줄을 가로 뻗었다

士民競來攀 백성들이 다투어 와서 밧줄을 잡아당겨 / 流汗相謬胎 서로 쳐다보며 땀을 흘리었다
 東明卽以鞭 동명왕이 곧 채찍을 들어 / 畫水水停沸 물을 그으니 곧 멈추었다
 松讓舉國降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 是後莫予訾⁸¹⁾ 이 뒤로는 우리를 헐뜯지 못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주몽신화>는 사서에 기록된 양상과 구전되던 것을 서사시로 옮긴 <동명왕편>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는 최초의 형태에서는 이러한 상호 경쟁의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화와 의 혼인을 허락 받기 위해 해모수는 하백과 도술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상대방의 나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송양과 주몽은 활쏘기를 겨루고, 주몽은 지혜를 발휘하여 송양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늘에 주술을 걸어 송양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후 결국 항복을 받아내고 있다.

그리고 신화는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기보다는 기존 사실을 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해모수의 혼인 과정에 있었을 갈등이나, 주몽과 송양과의 투쟁이 도술 겨루기나, 재주 겨루기 정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들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는 영웅서사시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 건국 시조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기록자의 관점에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은 소략되거나 삭제되었을 것이다. 주몽과 송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세적 유교 윤리에 비쳤을 때, 임금의 자리는 덕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다. 건국주의 성덕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건국의 역사에서 건국주가 속임수를 썼다거나, 하늘에 주술을 걸어 상대방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내용은 당연히 삭제되었을 것이다. 건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는 고려 중엽에 편찬된 역사서로서, 그 때는 이미 중세적 이념이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더구나 저자 ‘김부식(1075-1151)’은 철저히 유교적 합리주의로 무장된 당대 유교 이념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고려의 전신인 성스러운 고구려의 건국주에 대해 불경해 보일 수 있

80) 『三國史記』 因與之鬪辯 亦相射以校藝 松讓不能抗.

81)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는 내용들은 순화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서 성스러운 인물에 걸맞는 평화적인 합병이 이루어지고 투쟁의 역사는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대 영웅담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못하고 활쏘기를 겨루는 모습이 남아 있어 우리에게 투쟁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구전되던 건국서사시는 고대 영웅의 모습을 강조하는 고대서사시적 면모를 보였다면, 이 서사시가 사서에 기록되면서, 당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중세적 모습으로 변이되어 기록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수로신화>에도 이와 유사한 투쟁의 과정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진략)

탈해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술법을 겨룰 수가 있겠소?”

수로왕이 말하였다. “좋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로 변하자 왕은 독수리가 되고, 또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왕은 새매로 변했는데, 이 사이 아주 짧은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탈해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니 왕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탈해가 이에 항복하여 말하였다.

(중략)

왕은 탈해가 머물면서 모반을 꾸밀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500척을 내어 추격하였으나, 탈해가 계림 땅 경계로 도망쳐 들어갔으므로 수군이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한 기록은 신라의 기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⁸²⁾

완하국에서 알로 태어난 탈해가 바다로 가락국에 도착하여 왕위를 빼앗기 위해 수로왕과 도술 경쟁을 벌이지만, 패하여 계림, 즉 신라 땅으로 피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인 수로왕과 탈해는 고대 영웅들답게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며 도술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서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담겨져 있다. 수로왕이 탈해가 모반을 꾸밀까 염려하여 ‘수군 500척’을 출동시켰다는 것은 이들의 대결이 단순히 도술 경쟁이 아니라 무력 대결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무려 500척이나 출동시켜서 진압해야 했을 정도로 탈해의 세력은 강대한 무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500척이라는 숫자가 과장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군사력을 동원해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의 대결은 무력 대결이었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고대 서사시에 걸맞게 극적 장치를 통해 영웅들의 도술 대결로 변이된 것이다.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1206-1289)이 저술한 것으로, 정사인 『삼국사기』에 비해 야사적 성격이 짙은 책이다. 또한 당대 구전되던 많은 설화들을 수집한 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성격상 공식적 문헌기록을 남기지 못한 가야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당시까지 전해지던 서사시적 성격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투쟁은 고대서사시적 재구성성을 거친 형태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건국의 과정에서 투쟁이 있었다는 점은 <주몽신화>나 <수로왕신화>나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극적 재구성성을 통해 도술 겨루기나, 재주 겨루기 등의 양상으로 변이되어 고대 서사시적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신화들의 이러한 양상은 <삼성신화>와 본풀이들의 관계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중용출이라는 시조의 신성한 탄생을 강조하고, 뚜렷한 투쟁담이나 무용담 없이 건국했다는 <삼성신화>는 문헌 정착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들이 변모된 것일 가능성이

82) 『三國遺事』 駕洛國記

있다. 이들 삼신인들이 세속적 권력인 땅을 나누는 과정도 마찬가지로이다. 앞의 자료에서처럼 활을 쏘아 땅을 나눔으로서 매우 평화적으로 종결된다. 분명 신화 문맥상으로는 고·량·부 삼신인들은 사이좋게 세속적 권력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국 후 세월이 흘러 탐라국의 국권은 고씨에게 돌아간다. 즉, 신라가 박씨, 석씨, 김씨 세 집단들이 경쟁하다 최후에 김씨 집단이 왕위를 독점했듯이 탐라국도 고·량·부 삼신인이 분립하다가 최후에는 고씨 집단이 왕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삼신인들이 마냥 평화롭게 건국하고 지경을 나누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아마도 치열한 경쟁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문헌정착과정에서 소실되고 변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풀이들은 주인공의 용맹을 강조하며, 투쟁 끝에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대 영웅다운 주인공의 용맹성이 강조되고 있다. 삼신인의 평화적인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들 본풀이 주인공들의 행위는 고대적 가치관에서는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세적 가치관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다. 아무리 아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아버지를 쫓아낸다는 것은 중세 윤리에서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탐라국의 건국신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헌상으로는 구전상으로는 전해지는 것이 없으니 막연한 추측만 해 볼 뿐이다. 즉, 고대의 원형은 따로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에 기록하면서 건국한 사실만 반영된 채 모험과 신화요소는 제거되어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원래 문헌신화에는 편찬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고 자부했던 고려시대에 고구려 건국의 정당성과 건국주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몽의 영웅적 면모가 『삼국사기』나 <동명왕편>에 전승되었지만 탐라국이 망하고도 한참 세월이 흐른 후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는 탐라 건국시의 영웅적 면모를 굳이 제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조선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제주의 전통신화를 인정할 하되 그 세계의 전통적 지배력을 부정하고 그것을 새로이 등장한 조선이라는 중심부 국가의 통제 아래 관할하려는 의도 아래 기록되었다⁸³⁾’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탐라 건국의 영웅적 면모를 기록하여 제주인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주고 탐라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구전되던 신화를 충실히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구전되던 신화는 좀 더 풍부한 내용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이들 본풀이들은 삼신인들에 대한 본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탐라국이 해체되고, 조선 시대에 문헌에 정착되고, 삼신인들에 대한 제의가 유교식으로 바뀌면서 문헌에는 영웅적 요소는 배제된 채 제주의 기원에 대한 평화적인 내용만 기록되고, 이들 본풀이는 지역 당신의 본풀이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본풀이에서는 문화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주인공들의 아버지는 모두 수렵 문화에서의 주식인 고기를 즐겨 먹고 있으며 농사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어 버린다. 반면 어머니들은 농사를 중시하여 남편에게 농사짓기를 권유하고, 남편이 소를 잡아먹어 버리자, 남편과 서슴없이 헤어진다.

이러한 내용들은 수렵 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전환되던 당시, 수렵 생활을 고수하던 수렵민들과 농경을 주장하던 농경민들간의 갈등이 본풀이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삼성신화>에서는 삼신인이 수렵을 주로 하다가, 삼공주가 가져온 오곡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여 문화간의 갈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83) 정진희,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280쪽.

<퀘네깃당 본풀이>는 백주또가 소천국에게 농사 지을 것을 권유하고 있고, <송당 본향당 본풀이>는 백주할망이 역시 소천국에게 농경을 권유한다는 점에서 세 처녀가 바다 건너 외부에서 오곡씨를 들여왔다는 삼성신화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등장하는 백주또나 소천국, 삼성신인의 湧出과 백주할망과 세 여인의 漂着은 <삼성신화>와 이들 서사시들간의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원래 유사한 내용이었을 <삼성신화>가 구전서사시에서 문헌신화로 의 정착과정에서 변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계열인 <송당 본향당 본풀이>나 <퀘네깃당 본풀이>에서 송곡성과 퀘네깃또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가족들을 내쫓아 <송당 본향당 본풀이>에서는 어머니 백주또는 ‘웃송당’에 좌정하게 하고, 아버지 소천국은 ‘알송당’에 동생은 ‘셋송당’에 좌정시키고 자신은 한라산에 좌정하여 한라 영산의 신이 된다는 점과 <퀘네깃당 본풀이>에서 ‘퀘네깃또’가 ‘김녕 알퀘네깃’에 좌정하여 당신이 된다는 점에서 고대 영웅 서사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로신화>같은 경우는 수로왕의 비인 허황옥이 부왕의 명으로 바다를 건너 수로왕을 찾아온다는 점과, 부왕이 신성한 인물이 나라를 세웠는데, 배우자가 없으니 자신의 딸을 보낸다고 하는 점에서 <삼성신화>와의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어 특히 흥미를 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탈해신화>에서도 <삼성신화>와 본풀이에 등장하는 무쇠석갑과 표착이 발견되어 역시 유사점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삼성신화>는 제주도 땅에서 솟아난 ‘양을라’·‘고을라’·‘부을라’와 다른 곳에서 제주도에 건너온 여성들이 부부가 되어 수렵과 농경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결합을 말해준다. 그리고 삼신인들이 사냥을 하며 살았다고 하여 수렵문화적 면모를 보이는데 비하여 3공주는 오곡 종자를 가져왔다고 하여 농경문화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는 당본풀이에서 땅에서 솟아난 남성신들이 수렵문화적 면모를 보이고, 여성신들이 농경을 권장하며 농경문화적 성격을 보이는 점과 일치한다. 또한 3공주가 무쇠석갑을 타고 표착했다고 하는 것은 <송당 본향당 본풀이>에서 백주할망이 표착해 온 점과 <퀘네깃당 본풀이>에서 백주또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 점, 아들들이 표착하는 점과 일치한다. 또한 <삼성신화>는 문헌신화로서 건국 당시의 투쟁의 과정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들들과 아버지의 갈등이 들어 있는 당본풀이들은 <삼성신화>의 원형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문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삼성신화>의 원형적 면모를 당본풀이들이 간직하고 있다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는 국가 제의 등에서 본풀이의 형태로 불렸을 건국서사시가 탐라국이 망하고 제의가 유교식으로 바뀌어 구연될 기회를 잃은 상황에서 지방의 당신들에 대한 본풀이로 격하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⁸⁴⁾ 즉, 중앙과 지방⁸⁵⁾에서 건국주에 대한 제의에서 불려지던 서사시가 탐라국 멸망 이후, 그 지방의 사당들은 지역 神堂으로 격하되고 서사시 역시 당본풀이로 격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당본풀이에 걸맞게 조금씩 변이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술했듯이 용출형은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를 비롯한 다른 당본풀이들과도 유사하여, 제주신화의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유구 등의 아시아 남방 해양 문화권

84) 조동일은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제주도 연구』 19집, 2001.)에서 탐라국의 통치자를 찬양하던 <탐라국건국서사시>를 나라가 망하자 당본풀이에서 가져가 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85) 건국주를 모신 사당이 중앙에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도 고·당전쟁 당시 당나라군사에 포위된 요동성에서 주몽을 모신 사당에 제의를 올려 성의 안전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高句麗本紀 9, 寶藏王 上 四年의 기록 참고.

과도 공통된다 할 수 있다. 활을 쏘서 지경을 나누는 것은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가 도래해 오거나 함에 실려 떠다니다 표착하는 것은 가야나 신라의 신화에도 보이는 요소로서 공통의 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출형이나 배우자의 도래, 표착 등과 같은 다른 지역과의 공통화소는 이들 지역과 제주 사이에 오래 전부터 이주나 교류의 관계가 있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제주신화는 이러한 상호 영향관계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3.2 삼승할망 본풀이

<삼승할망 본풀이>는 산육신인 삼승할망의 내력을 밝혀주는 일반신 본풀이이다. 이 서사시는 불도맛이나 삼승할망에게 축원하는 할망비넴에서 진행되는 것이 예사이다. <삼승할망 본풀이>의 핵심적 화소는 동해용왕 따님아기와 명진국 따님아기가 꽃 피우기 경쟁을 하여서 명진국 따님아기가 마침내 삼승할망으로 자리잡아 이승의 삼승할망인 생불왕이 되고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저승의 생불왕이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아기 생명을 관장하는 신들의 다툼이 두드러지고, 인간의 탄생과 신의 관장, 인간의 성장과 병의 침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화적 골격이 두드러진다.⁸⁶⁾

동해용왕 할머니가 태어나기는 구월 초아흐렛날 아버님 동해용궁 어머니 서해용궁으로 태어나 열다섯 십오 세 되니, 한두 살에 아버님 삼각수 수염 뽑은 죄목, 아버님 담뱃대 꺾은 죄목, 어머니 젓가슴 잡아 뜯은 죄목 때문에 죽이기로 했습니다. 서해용궁 어머니가 말을 하되,
“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 말고 동해용궁 대장장이 아들을 불러다 무쇠석갑을 만들어서, 죽으라고 동해바다에 띄워 버림이 어떠하겠습니까?”⁸⁷⁾

어린 아이를 무쇠석갑에 태워 바다에 버린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나서 신이 되는 대목에서 서사시의 줄거리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영웅의 일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대 영웅의 일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서사시는 고대 서사시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퀘네깃또본풀이>등을 위시한 상자나 궤에 담겨서 버려진 도래자의 신격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함에 실려 바다에 버려진다는 점에서는 <탈해신화>나 <바리공주>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여성이다. 무쇠 상자에 실려 바다를 떠다니다가 살아나는 것은 남성영웅과 다를 바가 없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남성 영웅들이 등장하는 서사시처럼 격렬한 투쟁의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영웅의 시련을 겪고 돌아와 삼신할머니 노릇을 하게 된다. 원시의 여성 신격에 대한 이야기가 고대 영웅담과 결합하여 영웅담적 요소를 지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해용왕 따님아기의 출산신으로서의 신격은 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출산을 담당할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86) 김현선, 「한국 구전 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373쪽.

87)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5쪽.

열 달 준삭을 채워도 어디로 해산시킬 차례를 몰라서 열두 달이 지나가니, 아기 엄마는 죽을 사경이 되어 간다.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겁이 난 김에, 은가위 받아들고 아기 어머니 오른쪽 겨드랑이를 숨숨이 끌어놓고 아기를 해산시켜 가니, 아기 잃고 엄마 잃게 되어간다.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겁난 김에 뛰는 것이 처녀물 가의 수양버드나무 밑에 앉아 비새같이 읊디다.⁸⁸⁾

출산을 담당할 신격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간 세상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출산의 과정이 여성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만큼 힘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을 완벽히 관장하지 못하는 출산신이라는 설정은 경쟁자의 도전을 초래하게 된다. 이 때 경쟁자로 ‘명진국 따님아기’가 등장한다. 여성 영웅들끼리의 경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두 신격의 경쟁담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꽃 피우기 경쟁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따님아기의 경쟁에서 꽃이 번성하게 된 명진국 따님아기가 승리한다.

<삼승할망 본풀이>의 이러한 화소는 창세서사시인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삼승할망 본풀이>는 <천지왕본풀이>의 인세차지경쟁담이 변형되고 두 인물 사이의 기능이 치환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들 사이의 다툼을 전개하던 원시서사시를 그렇게 바꾸어서 이용했을 수 있다.⁸⁹⁾ 다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희미하게 제시된 이승과 저승의 분치 과정이 인간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형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별왕’과 ‘명진국 따님아기’, ‘대별왕’과 ‘용왕국 따님아기’의 대립적 설정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삼승할망 본풀이>는 창세서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생겨난 다종다양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바뀌게 되었다.⁹⁰⁾ 그러면서 신들간의 경쟁이라는 원시서사시적 요소에 고대 영웅담이 결합된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동해용왕 따님아기에게 도전해서 삼신할머니의 자리를 빼앗는 명진국따님아기를 ‘아버님은 석가여래 어머니는 석가모니’라 하여, 토속적인 무속에 대한 외래 종교인 불교의 영향이 들어 있다 할 수 있으며, 고대에 대한 중세의 영향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삼승할망 본풀이>는 고대 서사시적인 구조에 원시적인 신들의 경쟁담과 중세적인 요소가 미세하게 삽입된 형태의 서사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원래 출산을 관장하려던 여신이 경쟁자에 밀려난다는 설정에서 비극적 영웅의 모습을 띠 올릴 수 있다. 여성영웅이자 비극적 영웅인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웅을 몰아낸 경쟁자가 ‘석가여래’와 ‘석가모니’의 딸이라 했다는 점에서 중세문화의 조류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무속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 신들의 경쟁담이자, 영웅의 일대기담적 요소는 중세 이전부터 간직하고 있었을 화소이다. 신들끼리의 경쟁에서 밀려난 여성영웅신의 이야기가 중세문화의 조류에서 다시 한 번 변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3.3 초공본풀이

88)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7쪽.

89) 조동일, 위의 책, 64-65쪽.

90) 김현선, 위의 논문, 376쪽.

<초공 본풀이>는 巫 또는 巫儀式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서사시이다. 그러므로 이 서사는 우리 민족 문화의 소중한 모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무속의 본질이나 무의식의 원원 또는 무속신들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서사시이다.⁹¹⁾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정국 부부는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다 주자대사의 소사로부터 백일 동안 불공을 드리면 자식이 생기리라는 말을 듣고 불공을 드린다. 그러나 재물이 한 근 모자라 딸이 태어나고 '자지멩왕 아기씨'로 이름을 짓는다. 자지멩왕 아기씨가 15살 되던 해, 임정국 부부는 옥황의 분부로 천상의 관직을 살러 가게 되고, 하녀 느진덕정하님에게 딸을 맡기고 떠난다. 하루는 황금산 도단땅에서 자지멩왕 아기씨에게 권제삼문을 받아오면 포상하겠다는 말을 듣고 주자선생이 나선다. 주자선생은 임정국 대감 집으로 가서 쌀을 시주 받으며 아기씨의 머리를 세 번 쓰다듬는다. 그리고 백일 후에 만날 수 있을 것을 예언하고 떠나니 아기씨는 느진덕정하님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한다. 그 후 아기씨는 임신하게 되고 돌아온 부모에 의해 임신 사실이 들통나 쫓겨난다. 이에 그녀는 주자선생을 찾아가 시험을 거쳐 받아들여지고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 삼형제는 15세가 되자 과거를 보러 삼천 선비의 집꾼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삼천 선비의 방해로 난관을 겪지만 배좌수와 팔죽을 팔던 할머니의 도움으로 과거를 치러 장원급제한다. 하지만 삼천 선비의 흉계에 의해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으려고 외조부를 찾아가니, 외조부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라 이른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려면 아들 삼형제가 심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巫具를 장만해 준다. 삼형제는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三天天帝釋宮에 올라 14일 동안 정성을 들여 어머니를 살려내고 양반들에게 복수한 후 무조신이 된다. 한편, 유정승 따님아기는 6살 때 육관대사를 만난 후 무병 증세를 보이다 77세에 드디어 심방이 된다. 그리하여 병으로 죽게 된 자부장자의 외동딸을 살려낸다.⁹²⁾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초공본풀이>는 최초의 무속 사제자인 남자 심방은 중의 아들인 쌍둥이 삼형제이며, 이외에도 이들이 무악기를 제조하였으며, 무구를 만들었고, 자지멩왕 아기씨는 당에서 이들 무악기와 무구를 지키는 당신이 되었으며, 유정승 따님아기는 무병을 앓고 무당이 된 강신무로서 굿을 하여 자부장자의 딸을 살려낸다는 내용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초공본풀이>는 무속과 무당의 기원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시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서사구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찾아가고, 주인공들이 모진 고난을 겪다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고대 영웅담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고대적 성격을 지닌 고대서사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초의 원시적 전승이 고대 영웅담의 영향을 받아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본풀이는 본토의 <제석본풀이>와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제석본풀이>는 <성인노리푸념>, <삼태자풀이>, <생굿>, <당금애기>, <시준풀이>, <제석풀이>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내용은 석가여래의 출생과 당금애기의 출생이 먼저 나온다. 그러나 탈없이 자라던 당금애기와 그들 부모에게 시련이 닥치고, 그 와중에 석가여래는 당금애기를 임신 시킨 후 떠난다. 임신 사실이 들통난 당금애기는 부모에게 쫓겨나고 아들 삼형제(三佛)를 낳는다. 그 후 석가여래와 재회하여 그들 부부는 천상으로 올라가고 삼불은 금강산으로 들어간다.⁹³⁾

91) 이수자, 위의 책, 50쪽.

92)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41-81쪽 참고.

일찍이 서대석은 <제석본풀이>가 <해모수신화>의 잔존 형태임을 찾았는데⁹⁴⁾, 남성과 여성이 비정상적 관계를 맺게 되고, 여성은 부모에 의해 축출되며, 아들을 낳는데 기이한 출생⁹⁵⁾으로 태어나고, 여성의 시련 극복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주몽신화>와 <제석본풀이>가 동일한 계열의 서사물이고, <제석본풀이>의 경우 천신계의 남성과 지신계의 여신인 여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신을 출산하는 신화로서 <단군신화>나 <주몽신화>등 고대 건국신화와 같은 뿌리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전승과정에서 석가여래와 삼불이라는 남신들의 이름이나, 본문 중에 불경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영향으로 변모된 무속신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대 영웅의 영웅담 구조에 중세의 가치관이었던 불교적 요소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아버지인 주자선생은 도술을 부리는 존재 정도인 반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은 아들 삼형제이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능력은 뛰어난 문장 실력과 공술⁹⁶⁾이다. 우리 민족에게 공술은 고대부터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던 듯하다. 우리의 고대 영웅들은 뛰어난 공술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형제들의 공술 솜씨는 고대 영웅담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몽신화>와 비슷한 요소를 갖춘 이야기로는 전술했던 <천지왕본풀이>도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 김영일은 “<천지왕 본풀이>에서는 영웅출현의 전제 조건으로서 세상의 혼란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토와 동일한 전승 양상을 보이는 <초공본풀이>는 영웅 출현의 전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초공본풀이>가 <천지왕본풀이>의 유형 또는 이에 의거한 변형으로 보아도 무방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⁹⁷⁾”라고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견해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몽신화>,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제석본풀이>가 매우 유사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던 매우 오래된 유형의 이야기가 각각의 서사시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개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천부지모적 존재들의 결연과, 아들들의 부친탐색, <제석본풀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들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뛰어난 활솜씨는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던 고대 영웅담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래의 원형에 바탕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무조신의 서사시와 창세서사시로, 고구려에서는 건국서사시로, 본토의 무가에서는 생산신의 서사시로 수용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는 3아들 중 첫째 본맹두와 둘째 신맹두는 과거시험에서 답안지에 ‘天地混合’, ‘天地開闢’을 써서 장원을 하는데, 이에 대해 허남춘은 “초공의 신이 천지혼합과 천지개벽과 연관된 측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⁹⁸⁾”고 하였다. 즉, 무당이라는 존재는 아득히 오래 된 시절부터 존재하였었고, 무조신에 대한 서사시도 그 근원이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존재하던 서사시는 고대 영웅담의 구조가 수용되며 오늘날 전승

93) 서대석·박경신 역주,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참고.

94) 서대석,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95) <제석본풀이>에서도 아들 삼형제가 출생할 때 천상천녀 둘이 내려와 아이를 받아주고 목욕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96) 중의 아들임이 들통나 과거합격이 취소되었다가, 뛰어난 활 솜씨를 보여 급제를 인정받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97) 김영일, 『한국 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208-209쪽 참고.

98)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신화의 관련성 고찰」, 22-23쪽.

되고 있는 형태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흔히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서 외부와 단절된 지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고대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하곤 한다. 그러나 바다는 항해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뿐 어느 지역과도 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바다의 이점은 그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전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는 본토와의 교류를 통해 본토에서 전승되던 서사시가 제주에도 유입되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앞 장에서부터 전술했던 본토와 제주서사시와의 유사성은 이 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바다 위의 섬이라는 공간이 반드시 닫힌 공간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제주를 열린 공간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서사시의 주인공을 자지명왕아기씨로 볼 때, <초공본풀이>는 수난 받는 여인의 일대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여성구비서사시이며,⁹⁹⁾ 자지명왕아기씨의 수난은 유화부인의 수난과도 맥락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는 하녀인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내쫓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자지명왕아기씨의 추방 이후 행적은 여신이라기보다는 수난 받는 여인의 모습에 가깝다. 부모로부터의 분리,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 출산에 이르는 과정은 전형적인 ‘여성수난사’¹⁰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지명왕 아기씨가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을 길게 노래함으로써 여주인공의 수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갖은 고생 끝에 황금산 도단땅에 도착한 자지명왕아기씨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을 거쳐야 한다. 즉 찰벼 두 동이를 내어주면서 껌질을 벗겨 가져오라는 것이다. 자지명왕아기씨는 거듭 시도해 봐도 소용이 없자 지쳐 잠이 드는데,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와서는 입으로 찰벼를 다 까놓은 채 다시 날아간다. 결국 자지명왕아기씨는 주자 선생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이경하는 자지명왕아기씨의 일대기를 통해 강조되는 女人의 수난사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였다.

여인의 수난사:

비범한 출생 → 혼전임태 → 추방 → (남편을 찾아서) → 출산 → 인준¹⁰¹⁾
(불완전한 결연) (모성성 획득)

이러한 수난은 <초공본풀이>에서 ‘혼전임태’와 ‘추방’이라는 비정상적인 사건을 통해 표현된다. 자지명왕아기씨가 삼형제를 낳고 신직을 부여받은 것은 곧 여성이 출산을 통해 모성성을 획득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영웅의 일생’ 구조로 이루어진 서사시를 모두 영웅서사시라고 한다면 <초공본풀이>는 여성영웅서사시이고 자지명왕아기씨는 여성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지명왕아기씨의 영웅성은 고난의 극복과 모성성의 획득에 있다.¹⁰²⁾

99)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9집, 구비문학연구회, 1999. 11쪽.

100) 서대식은 「제석본풀이 연구」에서 ‘딸아기’의 수난으로부터 ‘여성수난’의 구조를 추출한 바 있다. 제석본풀이의 여성수난은 서사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혼사장애’의 원형과 연관되는데, 특히 生産神, 즉 地母神의 수난에서 형성된 원형으로 보고 있다.

101) 이경하, 위의 논문. 13쪽.

102) 이경하, 위의 논문, 14쪽.

그리고 이러한 수난과 극복이라는 구조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당대인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수난을 극복하는 작중 인물을 통해 대리만족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수난극복이라는 구조는 옛 여성들의 고달픈 삶과 맞물려 많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곳에서 구연되는 본풀이의 주 향유층이 여성들이었다는 점과도 유관하다 할 것이다.

한편, 문헌서사시 <동명왕편>에서 유화의 일생 역시 자지명왕아기씨의 경우와 유사하다.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이 없으나, 비정상적인 관계에 의한 임신과 비정상적 출산, 그리고 어머니로서 주몽을 기르는 과정이 강조되어 여주인공의 모성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야기의 초점이 주몽의 고구려 건국에 있으므로 유화의 역할은 고구려 건국을 돕는 것으로 한정되어 여성영웅의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초공본풀이>는 유정승 따님아기가 심방이 되는 내용에서 곳을 시작한 제주도 무조신에 대한 신화적인 성격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가 갖는 원시적이며 고대적인 성격의 고대 서사시에다 변모의 형태를 거친 중세 서사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삼형제가 중의 자식이기 때문에 억압을 당한다는 점과 주자 선생이라는 이름이 중의 이름 위에 덧 씌워졌다는 점에서 그 중세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의 자식이므로 억압을 당한다는 것은 중이 박해를 받던 시절에 형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당금애기와 자지명왕아기씨가 중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부모에 의하여 임신 사실이 들통나 추방당하여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는 유화가 해모수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역시 아버지 하백에 의하여 추방당하여 시련을 겪는다는 주몽 신화와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 습血하여 주몽의 아들임을 인정받기까지의 행적이 아들 삼형제의 신화적 행적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술했듯이 <주몽신화> 계열의 원형적 서사시가 제주에 유입되어 무조신의 이야기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미 앞에서 전술했듯이 바다라는 열린 공간을 통하여 본토와 제주 간에 왕래가 있어 본토의 서사시가 수용되었거나 혹은 본토에 있던 이주민들이 이 서사시를 가지고 제주에 와서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제주의 상황에 맞게 개작하여 무조신의 서사시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3.4 이공본풀이

<이공본풀이>도 <주몽신화>의 주몽-유리 2대의 신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초공본풀이>가 주몽의 일대기와 통한다면 <이공본풀이>는 유리의 일대기와 가깝다.¹⁰³⁾

원강도령이 서천 꽃밭의 꽃감관을 살려 서천국으로 떠나게 되자, 이미 임신한 부인 원강암이가 따라나선다. 그러나 임신한 몸으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게 되자 원강암이를 자현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고 떠난다. 원강암이는 그 곳에서 아들 할락궁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가 자라 15세가 되자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간다. 신포로 가져간 빗을 맞춰보고 아들임을 확인받은 할락궁이는 돌아와 이미 자현장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어머니를 살려 내고 꽃감관의 뒤를 잇게 된다.¹⁰⁴⁾

103) 허남춘, 위의 논문, 32쪽.

104)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83-93쪽 참고.

이는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부인 예씨를 두고 떠난 후 아들 유리가 태어나고, 아들이 자라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떠나며, 신표로 가져간 단검을 맞춰보고 아들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내용과 그대로 부합된다. 주지하다시피 유리왕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주몽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신화적 내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서사무가 본풀이의 신화적 계승임이 자명하다.¹⁰⁵⁾

그리고 <이공본풀이>에는 고대 영웅서사시적 면모가 드러나는데, 주인공 ‘할락궁이’의 영웅적 면모가 그러하다.

할락궁이가 어머님하고 이별하여 먼 올래로 나서는데, 천년동이 개가 나가서 좃으려 하니 메밀범벅 한 덩이를 집어던져 메밀범벅 한 덩이 먹는 틈에 천리 길을 뛰어간다. 또 한 덩이를 집어던져 먹는 틈에 만리 길을 뛰어간다. 또 한 덩이를 집어던져 먹는 틈에 수만리를 지나간다.¹⁰⁶⁾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는데 장자 집의 사나운 개가 방해하자, 기지를 발휘하여 메밀범벅을 던져 개가 그것을 먹는 틈에 천리, 만리, 수만리를 가버렸다고 하고 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할락궁이의 뛰어난 능력으로 신이한 능력을 지닌 고대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리 역시 고대 영웅다운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준다. 아버지 주몽의 활숨씨 못지않은 돌팔매 숨씨를 보여주고, 신표를 맞춰보고 피를 함해 부자관계임을 확인 받은 후 좀 더 능력을 보이려고 하자 공중으로 높이 뛰어 올랐다 내려오는 신이함을 보여준다. 이는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붉은 피 세 방울을 떨어뜨려 연못을 말리기도 하고, 환생꽃을 가져다 죽은 어머니를 살려 내는 신이한 능력을 보여 주는 점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이 임신한 원강암이를 자현장자에게 파는 부분은 서민들이 겪는 고난으로, 앞 부분에서는 凡人서사시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시적인 성격은 할락궁이가 서천 꽃밭 감관이라는 자리에 신으로 좌정하게 됨으로써 영웅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 변모를 보여 주고 있다.

신화라고 불릴 수 있는 신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오래 전 건국 이전부터 불려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공본풀이>의 원래 모습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달랐을 것이다. 주인공이 어려서 고난을 겪는 영웅의 일대기적 모습이라든가, 박해자에 대한 징벌 등의 화소는 고대서사시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공본풀이>와 비슷한 내용이 평북과 경남 지역에서 무가로 전승되고 있고¹⁰⁷⁾ 석보상절 속의 <안락국태자경>, 고전소설 <안락국전>, <지림사 연기설화>등에도 비슷한 내용이 전승되는데, 그 화소라든가, 스토리의 전개가 놀랄 만큼 유사하다.

<안락국태자경> 같은 경우, 사라대왕이 광유성인의 부름을 받고 유나라는 관직을 살려 떠난다는 것과, 원양부인이 임신한 몸으로 따라나섰다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자신의 몸을 자현장자의 집에 팔기로 한다는 점, 장자의 집에서 아들을 낳는다든지, 장자가 부인의 미모를 탐낸다는 내용, 태어난 아들이 자라 아버지를 찾아가 만나고, 장자에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의 토막난 시신을 수습하고, 어머니는 극락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내용이 놀랄 만큼 유사

105) 허남춘, 위의 논문, 32쪽.

106)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89쪽.

107) 평북 강계 지역본은 <신선세턴님청배>, 경남 진해 지역본은 <악양국왕자노래>, 경남 동래 지역본은 <방심곳>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된다.

하다.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은 안락국태자경의 사라대왕이요, 원강암이는 원앙부인, 활락궁이는 안락국 태자인 것이다.

그외 다른 이야기들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남편이 가야 하는 곳의 이름이나 성격은 다르지만 그 곳이 신성한 공간이라는 점은 비슷하며, 등장하는 인물 또한 비슷하다. 다만 이들의 신분상의 성격은 조금씩 달라서 내용상에는 변별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의 헤어짐과 재회라는 양상과 그 비극적 성격 및 서사구조상의 유사점을 보여 이미 선학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의 유형, 또는 같은 서사군으로 볼 수 있다.¹⁰⁸⁾

그리고 예전부터 본토의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이공본풀이>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형성되어 왔다¹⁰⁹⁾. 그러나 이수자는 <이공본풀이>는 고대에 무속제의를 위해 창조된 무속고유의 신화일 가능성이 있고, 신화란 전설·민담·소설 등을 이루는 모태가 된다는 일반적인 학설을 중시하여 <이공본풀이>는 무속 고유의 신화로서 <안락국태자경> 등의 형성은 오히려 <이공본풀이>를 모태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¹¹⁰⁾

그러나 <이공본풀이>가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안락국태자경>이 수록된 『석보상절』의 간행 시기가 15세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의 서사물은 적어도 그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안락국태자경>은 원래의 불경에는 없는 僞經¹¹¹⁾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경은 정식 불경이 아닌 일반 민중들에 대한 포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의로 편찬한 불경이다. 일반 민중들로서는 불경의 내용이나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난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들에게 불교의 원리나 사상을 보다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경의 편찬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할 수도 있지만 민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친숙한 서사물을 빌려 편찬했을 수도 있다.

무가는 무속의 서사시로서 그 기원이 오래된 구비 서사물이다. 본토 북부와 남부 지방에 비슷한 양상의 무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구조의 서사물이 오래 전부터 본토에 광범위하게 있어왔고, 이는 본토와 제주의 교류를 통하여 제주에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주도 신화에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과 그 꽃밭의 여러 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서천꽃밭이라는 소재가 오래 전부터 신화 속에 수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기원이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전술했듯이 <이공본풀이>는 고대 영웅서사시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북방 계열의 영웅담이라 할 수 있는 <주몽신화>와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북방계열의 영웅담이 본토에 광범위하게 전승되다 어느 순간 제주에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서사시는 제주에서 꽃감관의 이야기에 수용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토에서 근근히 전승되던 무가는 불교 설화에 수용되어 <지림사 연기설화>로 변모되고, 후에 <안락국태자경>과 <안락국전>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토 무가는 불교설화에 영향을 받아 등장인물의 이름 등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호 영향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본토 무가는 중세문화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변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세문화의 조류 속에서 무속의 존재를 보장받고자 이미 민중들에게 친숙

108)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제10집, 1993, 15쪽.

109) 장덕순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 7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우리문학연구회, 1988, 김선풍,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1993. 등

110) 이수자, 위의 논문.

111) 사재동, 「안락국태자경의 연구」,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299쪽.

한 불교계 서사물로 변모한 것이다. 원래의 원형은 현재 전승되는 이야기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 불교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을 제주 원형을 받아들여 제주의 성격에 맞게 수용하며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고, 중세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던 본토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소멸되었고, 남아 있는 지역에서도 불교적 성격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적 성격의 이야기는 다른 장르에 수용되어 현재 여러 유형의 이야기들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도 등장인물의 이름 등에서 어느 정도 불교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5 꽃과 재생·풍요

제주서사시 속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이라는 장소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으로, 그 곳에서는 여러 신비한 꽃들이 있는데 특히, ‘환생꽃’이라는 꽃이 눈길을 끈다. 이름 그대로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꽃인데, <이공본풀이>에서 ‘자현장자’에게 죽음을 당한 어머니 ‘원강암이’를 다시 살려 내는 꽃이 바로 ‘환생꽃’이고, <차사본풀이>에서는 죽은 버무왕의 세 아들을 다시 살려내며,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죽은 문도령을 다시 살려낼 때 사용한 꽃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환생꽃’은 결국 인간의永生에 대한 욕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에 대한 욕구는 특별히 제주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욕망의 반영일 것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선택된 남편 사라도령과 헤어진 원강암이는 자현장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모진 서러움을 겪는다. 그러다 장성한 아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고 원강암이는 자현장자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할락궁이는 마침내 서천 꽃밭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상봉하고, 아버지가 꺾어준 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낸다.

어머님 뼈를 차례로 모아 놓고 도환생꽃을 놓으니, ‘아이, 봄잠이라 오래도 잤다.’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어머니가 살아난다.¹¹²⁾

<세경본풀이>에서도 자청비는 자신을 육보이려던 정수남이를 죽인 후 부모의 책망을 받아 살려내고, 흥계에 빠져 죽은 남편 문도령 역시 살려낸다.

첫 채찍을 놓았더니 굴미굴산 깊은 숲속 정수남이 죽은 테를 찾아 간다. 바라보니 풀이 우거져 있으니, 은장도칼을 내놓고 동서로 베어 찢혀 환생꽃을 놓아 때죽나무 막대기로 세 번을 후렸더니, 정수남이 땃방석 같은 머리를 박박 긁으면서,

“아이고 봄잠이라 오래 잤습니다.”

(중략)

자청비는 아래 쪽 서천꽃밭에 들어가 다시 서천꽃밭 도환생꽃을 따다가 죽은 낭군을 살려두고 나오더니,¹¹³⁾

112)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93쪽.

113)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39-241, 255쪽.

위의 <이공본풀이>의 ‘도환생꽃’이나 <세경본풀이>에서의 ‘도환생꽃’, ‘환생꽃’으로 나오는 ‘꽃’들은 공통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 내는 꽃이다. <문전 본풀이>에서도 죽은 ‘여산 부인’ 역시 서천 꽃밭에서 따온 ‘도환생꽃’으로 살아나고, 조왕(부엌)신이 된다. 이러한 꽃의 성격으로 보아 일종의 靈物이자 靈藥인 셈인데, 오랜 시련을 겪은 후에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얻게 되는 주술력이 부여된 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꽃의 의미는 <삼승할망 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이 ‘생불꽃’, ‘환생꽃’을 들고 다니면서 여성에게 잉태를 시킨다는 점에서 잉태와 출산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경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로 대지에 씨를 뿌리자 그것이 점점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실을 신화의 세계로 끌어들이어 상징화시킨 것이다.¹¹⁴⁾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씨가 움이 돋아야 식물이 번성한다. 이러한 현상을 일상에서 체험하던 농경문화인들이 이 꽃의 신비한 능력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상징화시킨 것이 이러한 화소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아기를 잉태하는 ‘생불꽃’, ‘번성꽃’을 생각해내었을 것이며 여기서 다시 사고가 확대되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을 꽃에다 집목하여 ‘환생꽃’을 생각해내었을 것이다. 이는 잉태와 출산은 자신은 죽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식물의 일생에서 차용한 것이라면, 죽음은 곧 새 삶을 이룬다는 자연의 법칙이 인간에 투영되면서 꽃이 지닌 잉태라는 원초적 의미가 부활에까지 의미를 확대한 것이다.¹¹⁵⁾ <이공본풀이>나 <삼승할망 본풀이>에 등장하는 ‘생불꽃’, ‘환생꽃’은 잉태가 곧 부활과 동일한 의미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재생과 부활은 <차사본풀이>에도 나타난다. 버무왕의 일곱 아들 중, 끝의 세 아들은 기구한 팔자를 면하기 위해 동개남절(東觀音寺)에서 3년간의 공양을 쌓은 끝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중 광양 땅을 지나면서 시장기를 이기지 못하여 과양생의 집을 찾아 간다. 그러나 이들 형제가 지닌 재물에 눈이 먼 과양생의 처에 의하여 이들 형제는 목숨을 잃고 만다. 그들은 그 후 세 송이 꽃으로 환생한다. 꽃의 원초적 이미지인 생명력이 환생이라는 화소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과양생의 세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과거에 급제한 후 급사한다. 과양생 부부의 아들 형제가 죽은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억지에 결국, 강림이가 나서게 되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져 버무왕의 아들 3형제는 환생의 목적인 복수를 달성하고서 염라왕에 의하여 다시 부활한다.

염라왕이 금부채로 주천강 연못을 세 번 때리니 주천강 연못이 바짝 찾아져 마른 먼지가 나옵니다. 버무왕 아들 죽은 시체는 빼만 살그람이 남아 있으니 차례차례 모아 놓고, 염라왕이 금부채로 세 번을 때리니, 삼형제가

“아이고 봄잠이라 늦게 잤습니다.”¹¹⁶⁾

이러한 이야기들에는 이미 한 번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내고 싶은 제주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할 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간절히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 버무왕 형제들처럼 악인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제주인들의 원초적 소망이 이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

114) 현승환, 위의 논문, 14-15쪽.

115) 현승환, 위의 논문, 30쪽.

116)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163쪽.

또한 이런 재생의 화소는, 재생을 통한 풍요의 기원이라는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경 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죽은 문도령과 정수남이를 다시 날려낸 후, 상세경이 되고, 문도령은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이 된다. 즉, 문도령과 자청비는 농업의 신이 되고, 정수남은 축산신이 된 것이다. 만물이 죽어 있던 겨울에 농업의 신과 축산신이 죽었다가, 생명의 계절인 봄에 다시 재생하여, 각각 농업과 축산을 관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풍요를 인간들에게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에게 있어 아름다움에서 출발한 꽃은 번영과 풍요라는 상징을 파생시켰고, 꽃이 개화하여 변화하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생리구조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유사하여 꽃이 다음 해 다시 개화하는 속성은 재생을 상징하게 되었다.¹¹⁷⁾

즉, 제주 서사시에서의 재생과 풍요, 생산의 꽃들은 우리민족의 보편적 관념의 결과이고, 이러한 꽃의 상징성은 앞의 창세서사시에서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관념은 본토와 제주의 창세서사시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꽃피우기 경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신화에서 서천꽃밭의 꽃은 생명을 주는 '환생꽃'도 있지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수레멜망약심꽃', 사람을 웃게 만드는 '웃음웃을꽃',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싸움싸울꽃'도 있다. 할락궁이는 이 꽃들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자청비는 하늘나라의 변란을 평정한다.

일가친족 다 모여들자, 웃음꽃을 놓았더니 양천웃음 벌어진다. 싸움꽃을 놓았더니 싸움이 벌어진다. 멸망꽃을 놓았더니 일가친족이 다 죽어간다.¹¹⁸⁾

자청비가 이 말을 듣고, 아래 쪽 서천꽃밭 수레멜망약심꽃을 꺾어 갖고..(중략)..멸망꽃을 동서로 뿌렸더니 1만명의 군사와 3만명의 군사가 무성한 삼밭에 늪은 삼이 쓰러지듯 늪은 삼밭에 건 삼이 쓰러지듯 동서로 쓰러진다.¹¹⁹⁾

사람들의 생사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까지도 통제하는 꽃들이다. 이러한 꽃들을 신들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신들에 대한 제의에서 불러진다는 것은 꽃을 이용한 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생불꽃, 웃음꽃, 싸움꽃, 멸망꽃은 태어나고, 웃으며 기뻐하고, 남들과 싸우고, 그러다 생명이 다하면 죽는 인간의 일생과 닮아 있다. 꽃이 피고(태어나고), 자라다(삶을 살다), 지는(죽는) 속성이 인간의 삶에 투영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삶을 살면서 온갖喜怒哀樂과 타인과의 갈등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일생을 자연물인 꽃을 빌려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서쪽은 해가 지는 암흑의 공간으로 그곳은 우리 민속에서 저승을 상징한다. 사람이 죽으면 간다는 황천이 서쪽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의 이상세계인 극락 역시 서방정도, 즉 서쪽에 있다. 그리하여 사람을 죽이는 '멸망꽃'이 서천꽃밭에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천의 세계는 본토의 <바리공주>에서 보이듯이 죽은 부모를 살리는 생명의 약수가 있는 곳이며, <이공본풀이>등 제주 무가에서 보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

117)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넥서스, 1998, 31쪽, 41쪽.

118)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91쪽.

119)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55쪽.

는 '환생꽃'과 삼승할망이 생명을 주는 '생불꽃'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서천이라는 곳은 결국, 인간의 생과사를 관장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싸움꽃, 웃음꽃 등에서 보이듯이 인간의 감정까지도 지배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생사와 감정까지도 지배하는 이러한 꽃들은 꽃의 일생을 인간에게 투영시킨 신화적 상상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인간의 일생을 지배하는 꽃들은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서천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제주 서사무가의 중세성

4.1 중세서사시의 전승

<세경본풀이>는 남녀의 간절한 애정을 노래했다. <세경본풀이>는 창세서사시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하강한 남성과 지상 여성의 결연을 재현한다.

<세경본풀이>는 대단히 장편이다. 기자정성에 의한 출생, 연애와 결혼, 부모로부터의 추방, 죽은 남편을 살려내는 영웅적 행위, 신으로의 좌정이라는 주인공의 행적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손색이 없다. 무속서사시 가운데 남녀간의 애정담으로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여성구비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¹²⁰⁾

주인공 자청비는 여성 영웅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 이유가 단지 자청비가 남성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거나, 그의 행적이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청비의 애정성취가 갖는 의미를 농경신의 성격과 연결지어서 오곡의 풍농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성격으로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만,¹²¹⁾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삶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 성격을 지닌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옛적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살았는데 집안이 부유하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탄식하고 있었다. 하루는 시주를 받으러 온 중이 절에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불공을 드렸는데 계물이 조금 모자라 딸을 낳게 되어 자청비라 하였다. 자청비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하녀를 따라 빨래하러 나갔다가 하늘에서 글공부하러 내려온 문도령을 보고 반하여 남장을 하고 그를 따라가 함께 3년간 글공부를 한다. 그러다 문도령이 결혼하라는 아버지 하늘옥황의 편지를 받고 하늘로 돌아가게 되니, 자청비 역시 글공부를 그만두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다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자청비의 집에서 인연을 맺은 후 문도령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 후 문도령을 그리워하던 자청비는 중 정수남이가 문도령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정수남이를 따라 산으로 갔다가 겁탈을 당할 위기에 놓이나 지혜를 발휘하여 그를 죽이고 돌아온다. 자청비가 부모에게 중을 죽인 일을 고하자 그녀의 부모는 중의 일을 시키는데 일이 고된 나머지 남장을 하여 집을 나온다. 집에서 나온 자청비는 황세곤간 서천꽃밭의 부영이를 잡아 주고 황세곤간의 셋째 사위가 된 뒤,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구해 죽은 정수남이를 살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니 집안을 망칠 년이라 하여 부모에 의해 쫓겨나며, 주모할머니를 만나 수양딸이 되어 살아가게 되고, 문도령 혼사비단을 짜며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 이를 본 문도령은 자청비를 만나러 오지만, 자청비는 손가락을 문틈으로 내밀라 하여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고 문도령은 이에 돌아가 버린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주모할머니에게도 쫓겨난 자청비는 자청비와 같이 목욕하던 물을 길어 오라는 문도령의 심부름을 온 궁녀를 만나, 궁녀를 도와주고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서 문도령과 재회한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회포를 풀고, 며느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여 문도령과 결혼한다. 그러나 금슬 좋은 그들 부부를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푸대접하려는 모의가 진행된다. 이를 안 자청비는 문도령을 황세곤간 셋째딸에게 보내 자신

120) 이경하, 위의 논문, 14쪽.

121)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대신 보름을 살고 오라고 하는데, 문도령은 그만 기한을 잇는다. 이에 자청비가 편지를 보내니 문도령이 바빠 돌아온다. 궁에서 잔치가 열리고 흥계에 빠진 문도령은 죽고 만다. 자청비는 자신을 푸대접하러 온 무리들을 지혜를 발휘하여 퇴치하고, 서천꽃밭 도환생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려낸다. 그리고 하늘의 변란을 평정하여 상으로 오곡 종자를 받아 문도령과 더불어 지상으로 내려와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이 되어 신으로 좌정한다.¹²²⁾

자청비의 영웅성은 시련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자청비의 시련은 남성과의 관계, 특히 문도령과의 이별과 그 후의 결합의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결합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적 성격으로 그려진다.

첫 번째 시련은 하늘옥황으로부터 문도령에게 장가들러 오라는 편지가 오며 시작된다. 한 눈에 사모하게 되어 남장을 하고 글공부하는 곳까지 따라왔지만, 사랑하는 님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는 훈장선생을 작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도령에게 스스로 여자임을 밝힘으로서, 두 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남성과 이별하게 된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 문도령과의 결합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옛 시대의 여성이라고 하면 흔히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여성들은 주체적 결정 없이 부모가 정해주는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청비는 자신의 사랑 앞에서 현대 여성 못지않은 능동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남성 역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 자칫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일시적이긴 하지만 결합을 성취해낸 것이다.

문도령과의 이별 후 맞는 시련 역시, 남성으로 인해 생기게 된다. 종인 정수남이가 원인인데 아름다운 자청비를 사모한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겁탈하려 한다. 옛 연애담에 흔히 등장하는 사랑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고전 소설 <춘향전>에서의 변사또와 비슷한 역할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는 자청비의 능동성은 여기서도 발휘된다. 춘향은 강한 의지로 묵묵히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견디는 데 비하여 자청비는 스스로의 기지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인물들 간의 신분 설정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청비의 능동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청비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하여 집에서 쫓겨난다. 이 시련은 주모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간단히 해결된다. 영웅담에는 영웅을 돕는 구출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주모할머니 역시 갈 곳 없는 자청비를 구제해 주고 문도령 혼사에 쓸 비단을 맡아 자청비에게 짜게 하여 자청비와 문도령이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구출자의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출자는 얼핏 보면 철저하게 구출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문도령을 화나게 하여 돌아가게 만든 자청비를 쫓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 축출 역시 구출자로서 영웅을 돕는 행위이다. 자청비는 쫓겨난 후 문도령이 심부름을 보낸 궁녀를 만나 결국 문도령과 재회하게 된다. 이미 문도령은 주모할머니 집으로 자청비를 만나러 왔다 돌아갔으므로 서사구조 상 그 집에 있는 한 문도령과 만날 수 없다. 이미 자청비의 곤경을 구해주고 문도령과의 재회를 주선해줬던 주모할머니는 스스로 재회의 기회를 버린 자청비를 축출함으로써 인해 직접 문도령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122) 현용준·현승환, 위의 책, 197-259쪽 참고.

고전 서사물에는 우연적 요소가 많다. 자청비의 경우는 주모할머니나 궁녀와의 만남이 그 예에 들어간다 할 것인데, 결정적으로 궁녀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과 재회한다. 그러나 궁녀와의 만남이라는 우연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모할머니의 집에서 나와야 한다. 이 우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존재가 주모할머니로서 구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청비는 하늘옥황이 부과한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결국 문도령과의 혼인을 허락받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성취한다.

그러나 사랑의 성취 이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는다. 문도령이 모략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다. 그러나 死別에 임해서도 자청비는 문도령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청비는 죽은 문도령을 자는 것처럼 꾸미고, 푸대쌈(보쌈)하러 찾아온 자들을 거꾸로 골탕을 먹여 내쫓고, 환생꽃을 구해 결국 죽은 문도령을 살린다. 그 후 자청비는 하늘에서 五穀 種子를 받아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된다.

이처럼 자청비의 영웅성은 시련의 극복에서 찾을 수 있다. 자청비에게 시련은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문도령과의 ‘분리-결합’은 자청비에게는 즉 ‘시련-시련극복’의 과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자청비가 영웅인 이유는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문도령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역경을 무릅쓴다는 데 있다. 이처럼 자청비가 갖고 있는 영웅으로서의 비범한 능력은 단순한 미모나 재주라기보다는 문도령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굳은 신념에 있다¹²³⁾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은 남성에 의해 종속되던 상황에서 자청비의 이러한 삶의 적극성은 그 시대 여성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청비의 행적을 무가로 들으면서 당대의 여성들은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다분히 신화적인 발상이지만, 자청비의 삶의 모습은 그 당시 여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고, 여성 주인공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볼 때 중세적이라기보다는 근대로의 이행기적인 성향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일생을 통해 세경신의 내력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남편·남성과의 분리’라는 여인들의 또 다른 수난과 그 극복을 강조하는 중세여성서사시의 한 전형이라 하겠다.¹²⁴⁾

축산신인 하세경으로 좌정하는 ‘정수남이’는 엄청난 식욕을 소유한 대식가로 묘사되고 있다.

도끼로 소가죽 말가죽에 틈을 내어, 주걱 같은 손톱으로 껍질을 벗겨, 한 점 끊어 불 속에 넣어서 익었는가 한 점, 설었는가 한 점 먹다 보니 소 아홉, 말 아홉은 간 곳이 없어간다.

(중략)

“상전님 먹을 짐식은 메밀가루 닷 되만 놓고 소금은 다섯 줌만 놓고, 나 먹을 짐식은 메밀 찌꺼기 가루 닷 말만 놓고 소금은 넣는 듯 마는 듯 하십시오.”

(중략)

“어서 바빠 밥도 아홉 동이, 국도 아홉 동이 차려놓고 술도 아홉 동이 차려놓아 석자 오치 말머리수건과 돼지머리를 차려 놓아 말머리 고사를 지내십시오.”

매우 급하게 다 차려놓자, 정수남이는 노뎛돌 위에 벌여 놓아 고사지내고, 제물을 조금씩 걷어 모은 것은 자청비 모르게 말 왼쪽 귀에 가져다 부어간다. 말은 귓속에 물이 들어가니 도리질을 해 간다.

123) 이경하, 위의 논문, 16쪽.

124) 이경하, 위의 논문, 17쪽.

“상전님아, 저거 보십시오. 말도 배부르게 많이 먹었노라고 도리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전님아, 이 음식은 아무도 안 먹고 마부만 먹습니다.”

“어서 네가 전부 먹어라.”

정수남이가 받아서 난가리 곁에 혼자 앉아서 남김없이 다 먹으니 배가 똥똥 붓는다.

그 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혼인식을 할 때 말머리수건 석자 오치를 차려 놓고 말머리 고사를 지내는 법입니다.

(중략)

정수남인 상전 점심까지 갖고 가서 반찬으로 섞어가면서 병든 병아리만큼씩 두꺼비만큼씩 떼어 모조리 먹고...(중략)

하세경인 정이었던 정수남이는 7월 마불림제를 받아먹도록 하고,¹²⁵⁾

위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식가적인 면모는 그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와 말을 잡아먹는 모습은 마치 <송당본풀이>나 <케네깃당본풀이>의 ‘소천국’을 연상케 한다. 전술했듯이 소천국은 농경신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신으로 정수남이는 소천국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⁶⁾. 또한 정수남이는 말머리고사의 기원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7월 마불림제를 받아먹는 신으로 좌정하여 그의 목축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원시 및 고대의 수렵신의 모습이 중세로 접어들며 목축신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수남이는 자청비의 신적 지위의 획득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자청비는 자신을 범하려던 정수남이를 죽였다가, 다시 환생꽃으로 그를 살리는데, 이는 풍요를 관장하는 농경신으로서 풍요를 관장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자연물인 곡식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신이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수남이는 자청비의 능력을 증명하는 통과의례에 희생되는 존재이자, 그녀에게 시련을 가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그녀에게 시련을 주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면서, 자청비가 죽음과 재생을 관장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청비가 농경신의 지위를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모든 사건들이 종료된 후 자신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목축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을 사람의 용기와 지혜로 제압했다고 한다. <차사본풀이>에서 서술하는 시련과 여행은 ‘영웅서사시’의 설정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차사본풀이>에서는 장례법의 연원이라든가, 삼우재, 소기, 대기, 기일제 등의 장례순서와 같은 인간의 장례 절차의 기원을 언급하고 있으며, 까마귀가 실수하는 바람에 인간들의 죽음에는 늙고, 젊음의 순서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비과학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현대인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차사본풀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승 세계에 대한 묘사는 결국 그 당시 제주인들의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본풀이에는 원님과 염라대왕이라는 각각 이승과 저승을 지배하는 두 절대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강림이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지배층의 권위를 비판하는 민중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강림이는 민중의식을 지니고 권위세계를 비

125) 현용준·현승환, 위의 책, 219-257쪽.

126) 정수남이와 ‘소천국’과의 연관성은 이미 권태효(「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77-110쪽)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이 서사시의 이러한 내용들은 민중의식이 성장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과양생 부부가 벌을 받는다는 설정에서는 민중들의 도덕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이목사본풀이>에서는 건국의 세 시조 '고이왕'·'양이왕'·'부이왕' 가운데 '양이왕'의 후손인 양이목사를 주인공으로 한다. 세 시조를 모두 '왕'이라고 하여 건국한 사실을 떠올리며 자부심을 가지려는 설정이 흥미를 끈다. 양이목사는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파견된 수령이다. 그러나 양이목사는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민의 편에 선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수탈을 거부하고 항거하다가 금부도사와 싸워 죽는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제사를 지내달라고 한다. 탐라국이 이미 멸망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억압 아래 중세적 질서에 지배당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서사시라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주는 풍농신인 蛇神의 내력을 노래하는 서사시로서, 주인공은 여성인데, 전반부에서는 인간으로, 후반부에서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추방되기까지의 행적이 자지명왕아기씨와 유사하여 눈길을 끈다. 두 자료의 핵심적인 서사단락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공본풀이> : 수륙불공으로 자지명왕아기씨의 출생 → 부모 출타시 중의 방문 → 혼전잉태 → 추방 → 남편을 찾아감 → 출산 → 삼형제의 어린시절 → 삼형제의 과거시험 및 축출 → 아버지를 찾아감 → 자지명왕아기씨와 삼형제의 신직부여

<칠성본풀이> : 수륙재로 딸아기 출생 → 부모 출타시 중에게 납치 → 혼전잉태 → 추방(무쇠석함) → 구출(뱀의 형상, 출산) → 해녀들의 神病과 칠성새남굿 → 모녀 뱀신의 좌정¹²⁷⁾

자지명왕아기씨는 수륙불공을 드러 얻은 귀한 자식이다. 칠성 아기씨 역시 송설룡과 장설룡이 수륙재를 지내서 얻은 귀한 딸이란 점에서 우선 두 주인공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출생이후의 행적은 더욱 유사한데,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중과의 결연, 혼전잉태, 이로 인한 추방의 과정은 동일하다.

<초공본풀이>에서는 부모가 없는 동안 집에 시주를 받으러 온 중이 “애기씨의 상가마를 살짜살짜 삼세 번 어루만져” 자지명아가 잉태를 하게 되고, <칠성본풀이>에서 칠성 아기씨는 부모가 천하공사·지하공사 벼슬을 살려 떠나자, 부모가 보고 싶어 집을 나섰다가 중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다. 부모들은 딸아기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양반 집에 이런 일이 없다”하고 그녀들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내쫓는다.

추방의 방식과 주인공의 이후 행적은 두 본풀이에서 차이가 난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영웅 신화의 빈번한 소재인 무쇠석함이 사용된다. 고대 영웅서사시에서 화소를 빌려왔다 할 것이다. 석함에 갇혀 바다를 둥둥 떠다니다 제주 함덕 바닷가에 표착하는데, 무쇠석함에서 나온 것은 인간이 아닌 뱀 여덟 마리였다. 아기씨가 뱀으로 변해 자식 일곱을 낳은 것이다. 무쇠석함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던 일곱 명의 해녀들은 병이 나고, 문점을 통해 모녀 뱀들은 해녀들로부터 칠성새남굿을 받고 각각 치소를 정한다. 이처럼 <칠성본풀이>에서는 추방 이후 인간에서 뱀신으로 주인공의 형상이 크게 변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신적인 면모가 강조된다.

이 서사시는 고대의 서사시가 중세로 넘어 오면서 설화적 요소를 첨가한 것이며, 민간에 널리 전승되던 뱀신앙과 결합하여 설화화하여 변모된 성격으로 보인다.

127)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283-297쪽 참고.

<삼공본풀이>는 일반신 본풀이에 속하는 것으로 전상신의 내력담이다. 전상이란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나쁜 일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나 그러한 마음¹²⁸⁾’을 말한다. 이 본풀이는 개인의 삶을 관장하는 운명신화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부모로부터 쫓겨나, 마통이를 만나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면에서 그 적극성은 다르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점에서 서동설화와 유사성을 갖는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가난한 부부가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아기라는 딸 셋을 낳았는데 막내딸을 낳은 후 부자가 된다.
- b.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말에 제 복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한 셋째 딸 가문장아기가 집에서 쫓겨난다.
- c. 부모가 맹인이 되고, 이어 거지가 된다.
- d. 산중의 오막살이에서 마통이를 만난다.
- e. 마통이의 마구덩이에서 사금을 발견한다.
- f. 두 사람은 결혼하고 부자가 되었다.
- g. 가문장아기는 맹인잔치를 열어 거지 맹인이 된 부모를 만난다.
- h. 부모가 눈을 뜬다.¹²⁹⁾

태어날 때 주어진 복(운명)으로 먹고 산다는 셋째 딸이 집에서 쫓겨나 가난한 자를 만나 혼인하지만 부자가 되는 즉, 부자로 살 운명이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셋째 딸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집안의 빈부는 여자의 복에 달려 있다는 것 등은 이러한 신화적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주인공 여자는 타고 날 때부터 복이 있었는데 그녀를 쫓아낸 부친은 복을 쫓아냈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이는 복이 있을 때는 부자로 살지만 복이 없을 때는 가난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¹³⁰⁾ 그리고 쫓겨난 막내딸이 만난 마통이라는 남자도 복이 없는 가난한 남자인데, 그녀를 만난 후로 부자가 된다. 그녀가 지닌 ‘복’의 위력이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에서는 복(행복)은 부자로 산다는 관념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을 지닌 존재는 여성으로 확인된다. 이는 여성 풍요의 원리라는 의식의 소산으로 보인다.¹³¹⁾ 또한 부모가 가문장아기를 쫓아내자, 눈이 멀고 집안이 망하며 동생에게 못되게 군 언니들이 각각 청지네, 용달머섯으로 변한다는 점¹³²⁾, 딸과 재회하자 눈을 뜬다라는 점들은 가문장아기가 주술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효행이 뒷받침되어 있다.

결국 <삼공본풀이>에는 ‘효’라는 도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무리 자신의 복으로 잘살아도 부모를 모른 척 해서 안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소박한 서민들의 윤리관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12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3쪽.

129)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95-107쪽 참고.

130) 현승환, 「삼공 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45쪽.

131) 현승환, 위의 논문, 46-47쪽.

132) 현용준·현승환 역주, 위의 책, 99쪽.

결국 이 본풀이는 인간의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인연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원시 및 고대적 요소에 ‘효’라는 소박한 윤리관이 삽입된 중세적 형태의 서사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서사시는 본토의 <서동설화>나 고전 소설 <심청전>과 그 기본 구조에서 유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

<서동설화>

- a. 서동이 異物交接에 의하여 과부의 몸에서 출생한다.
- b. 선화공주가 서동의 참소에 의하여 궁궐에서 쫓겨난다.
- c. 선화공주가 서동과 만나 통혼한다.
- d. 서동이 마를 캐던 곳이 금의 산지임을 안다.
- e. 서동은 왕위에 오른다.
- f. 미륵사와 석탑을 세운다.

<심청전>

- a. 심청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봉사인 부친에 의해 자란다.
- b.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중국 상인에게 몸을 판다.
- c. 바다 신에게 바치는 재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진다.
- d. 용궁에 갔던 심청은 연꽃이 되어 올라온다.
- e. 상인들이 임금에게 바치는 꽃 속에서 나온 심청은 왕비가 된다.
- f. 맹인잔치를 열어 부녀가 만나고 심봉사는 눈을 뜬다.

<삼공본풀이>, <서동 설화>는 각각 가문장아기와 선화공주 축출, 마통이와 서동과 해후, 마구덩이에서 금 발견, 결혼하여 부귀를 누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삼공본풀이>는 셋째 딸이 쫓겨나나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삼공본풀이>와 <심청전>은 둘 다 “孝”를 강조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맹인 잔치를 열어 부모를 만나고 부모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삼공본풀이>의 효의 강도는 심청전에 비하여 약한 느낌을 준다. 이는 유교적 덕목인 효를 받아들였던 시대, 즉 중세는 중세이되, 아직은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효를 강조하지는 않았던 시대에 이러한 내용의 화소들이 첨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삼공본풀이>는 여성이 주인공인데 비하여 <서동설화>는 남성이 주인공이다. 이는 <삼공본풀이>가 여성이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복에 의지하여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지만 스스로의 의지와 복으로 삶을 개척해가며 당대 여성들의 소망을 실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서동설화>는 ‘서동’이라는 남성 영웅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자신이 사모하는 여성의 처지는 아랑곳없이 계략을 써서 선화공주를 차지하고 결국 왕위에까지 오르게 된다. 이 설화가 실제로 백제 武王(?-641, 재위 600-641)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용의 아들이라는 혈통과 마를 캐던 곳에 금이 있었다는 설정은 서동이 결국 왕이 될 인물이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에 의해 왕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삼공본풀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중의가 두드러지고 선화공주는 수동적인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삼공본풀이>와는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다 할 수 있다.

<심청전>은 효녀 설화에 바탕을 둔 판소리계 소설이다. 그리고 <서동설화>는 향가 서동요의 배경이 되는 설화로서 옛 백제 지역에서 전승되는 몇 안 되는 설화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옛날 본토에서의 설화가 제주도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효녀 설화와 <서동설화> 2개의 설화가 흘러들어와 제주에서 융합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서사시가 <삼공본풀이>일 가능성이 있다.

4.2 문화의 갈등

제주설화는 제주사람들의 세계관과 제주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것은 제주문화의 근원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의 토착문화와 외래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을 본풀이와 문헌설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풀이와 문헌설화는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묘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문헌설화는 그 과정에서의 충돌이나 갈등이 생략 내지는 삭제되어 있는 반면에 본풀이에서는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 숨겨져 있지 않다.

제주는 중앙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면서 더 이상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가 아닌 한 지방으로 서서히 전락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변별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제주가 이 시기부터 중세의 보편적 문화인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며 융합과 충돌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충돌의 양상은 <이형상설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선후기 숙종 때 제주목사로 부임해온 이형상은 대대적으로 당과 절을 파괴한다.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중앙 이데올로기의 탄압이었다. 그리하여 아마도 제주인들과 갈등을 빚었을 텐데, 이런 양상이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당 오백, 절 오백을 파괴했다고도 하고 김녕사굴의 뱀을 퇴치했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당과 절을 파괴해서 귀신들로부터 양값을 받았다는 내용도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시의 제주도 전통문화와 본토의 유교문화의 충돌, 즉 그 당시의 문화충돌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설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토출신 관리들에 의한 신당의 파괴는 제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신화적 세계관의 파괴를 뜻하였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문화충돌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허춘은 “蛇神崇拜는 제주만의 독특한 현상인데, 사신을 모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뱀을 혐오하는 일반적인 감정이 교차되고 있다.¹³³⁾”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신들은 당신으로서 혹은 전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신들의 성격은 무속신앙과 연결시켜 무속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속신으로서의 사신이자 여신의 변신과 환생이 한 편의 서사시 내에서 두드러지는 자료는 표선면의 <토산리 알당 본풀이>이다. 일대기 형식은 아니지만, 여신의 형상이 뱀에서 금바둑으로, 애기씨로, 다시 구렁이로 변하면서 꽤 장편을 이루었다. 나주목사가 신당의 영험을 시험한다면서 뱀신을 불러내어 이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서두에 서술된다. 금바둑·은바둑으로 환생한 뱀신은 서울에 진상하러 온 강씨·한씨·오씨형방을 따라 제주 토산리에 입도하

133) 허 춘,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 연구』 제16집, 제주학회, 1999, 132쪽.

게 된다. 그런데 금바둑·은바둑은 어느새 애기씨와 느진덕정하님, 즉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지며, 이들은 왜놈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후 애기씨의 님은 형방의 딸아기들에게 들고, 성대한 치병굿을 통해 애기씨는 다시 구렁이로 환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토산 으드렛당 본풀이>에서도 주인공인 신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의 탄압에 항거하지 못하고 변형되어 도망치다 가까스로 제주에서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들 이야기들은 무속이 중앙 정부에 의해 탄압 받던 시절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고대장본풀이>에서는 제주목사가 신당을 파괴하는 것을 ‘고대장’이라는 무당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제어했다고 하여 중앙에 대한 무속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탄압 받지 않기를 바라는 무속인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교로 무장된 중앙 관리에 대해 무속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다.

<양이목사본풀이>에서는 ‘양이목사’라는 영웅을 내세워 중앙에 대한 저항 의식과 탐라국이 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양이 목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면서도 중앙에 진상할 백마를 팔아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들여, 제주도민들을 구제한다. 그러나 진상할 물품을 빼돌린 죄로 목이 베이게 되고, 육신은 용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잘린 목을 통해 자신은 제주 양씨의 조상이라 하여 탐라국을 세웠던 전통을 이야기하며 제주인의 자부심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진상의 어려움을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의 수탈이 심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양이 목사 같은 영웅이 나타나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영웅은 자신들의 건국시조였던 제주 양씨의 조상이었음을 이야기하며 탐라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세의 문화는 당시 무속적 관념을 가지고 있던 제주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래 문명은 토착 문명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앙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된다는 것은 통치 체제와 수탈의 강화였다. 그러나 당시 제주인들은 약자였다. 중앙의 통치와 강압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처지가 당신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쫓겨나고, 양이 목사는 죽게 되며, 당 오백·절 오백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고대장이라는 무당은 신이한 능력을 보이며 무속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양이 목사는 중앙의 수탈에 저항하며, 사신은 기어이 관리를 징치한다. 현실에서는 저항할 수 없었던 제주인들이지만, 문학을 통해서만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

중앙과의 문화 충돌을 일으키며 점점 무속 신앙이 쇠퇴해 갔지만, 쉽게 그들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5. 결 론

제주도는 아득한 시절부터 창세서사무가가 발생하여 제주도라는 공간과 제주인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탐라국이라는 고대 국가를 건설하고 나서는 건국사업을 정리한 건국신화를 탄생시켰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서사무가들을 보존하여 옛 한반도에 있어서의 신화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서사무가들이 태고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전역을 휩쓴 중심문화였던 유교문화나 불교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제주도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바다 가운데의 섬이라는 그 지리적 요건 덕분인지 중세보편문화 조류의 영향으로부터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결과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서사무가들이었다.

제주의 서사시는 원시와 고대, 중세 각각의 시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시성이 두드러진 서사시로는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를 들 수 있다.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는 그 서사구조의 성격상 수렵문화 시대에 사냥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면서 사냥물의 번성을 기원했던 당대인들의 소망이 반영된 신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천지왕본풀이>에는 천지개벽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원시서사시적 원형에 영웅담적 성격 및 수명장자 정치와 같은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고대서사시는 우선 건국신화를 들 수 있는데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는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어, 그 구비서사시적 원형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구전되고 있는 <송당 본향당 본풀이>나 <퀘네깃당 본풀이>에서 그 원형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본토의 건국신화에서 보이듯이 건국서사시에서는 건국자의 신성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며 그 투쟁의 과정이 소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의 <삼성신화> 역시 투쟁의 과정이 소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풀이들에서는 그 투쟁의 과정이 남아 있어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는 <초공본풀이>에서의 당금애기가 비정상적 관계를 맺은 후 수난을 겪는다는 점에서 <주몽신화>의 유화 부인과 유사하며, 아들 삼형제와 할락궁이가 각각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유리의 행적과 유사성을 보여 <주몽신화>와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공본풀이> 역시 <주몽신화>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본토의 많은 장르의 이야기들과 놀랄만큼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본토에서는 무가, 불경, 설화 고전소설 등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몽신화> 계열의 무속서사시가 본토에서 전승되다 제주로 유입되어 꽃감관의 이야기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토의 무속서사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변이를 겪은 후 설화와 불경 등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토와 달리 <이공본풀이>가 불교적 색채가 약한 것은 제주가 중세 문화의 영향을 본토에 비해 덜 받았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중세서사시에는 <세경본풀이>와 <차사본풀이>, <삼공본풀이>, <양이목사본풀이>, <고대장본풀이> 등을 들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인 세경신의 내력에 대한 본풀이로서 주인공인 자청비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모습은 근대지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차사본풀이>는 낮은 신분인 강님이가 저승과 이승의 권력자인 염라왕과 원님보다 우월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는 데서 민중의식의 성장과 지배권력에 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는 중세서사시이다. <삼공본풀이>는 운명의 신인 전산신에 대한 본풀이로서 인간의 운명은 변화

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토의 <서동설화>와 <심청전>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두 계열의 영향을 받아 융합된 이야기로 풀이할 수 있다. <고대장 본풀이>와 <양이목사 본풀이>를 통해서도 중세에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서사시에 자주 등장하는 꽃의 화소는 꽃의 원초적 이미지인 생명력이 재생과 부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재생과 부활의 화소는, 재생을 통한 풍요의 기원이라는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주서사시에는 악인에 대한 징치가 들어 있는데 이는 당대 도덕관의 반영으로 보이며, 악인의 시체가 다른 사물의 기원이 된다는 시체화생 화소는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원시적 사유에 도덕관이 반영되어 악인은 죽어서도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유를 보여 주며 교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숙하나마 제주무속서사시의 전승 양상과 공통적으로 보이는 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시기를 원시와 고대, 중세로 나눈 것은 구비문학의 가변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리한 작업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본고는 제주의 모든 무속서사시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한 면도 있지만 필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

제주는 분명 풍부한 무속서사시를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다. 일반신 본풀이만 해도 12개에 이르고 각 지역의 당본풀이와 조상신 본풀이를 헤아려 보면 그 분량의 방대함에 질릴 정도이다. 그러나 분량의 방대함에 비하여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몇몇 작품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작품들이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듯하다.

무속신앙과 관계 깊은 무신들의 일생담인 본풀이는 본토의 설화와는 다른 특이한 樣式的 특질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의 신화나 전설에는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삶의 방식, 생활양상등이 드러나 있으며 제주의 역사, 문화, 풍습, 제도 등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다. 제주설화는 결국 제주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관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속성에 기인한 보편성과 개별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특수성이 보이게 마련이다. 이는 한국문화와 제주문화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명 동일 민족이라는 속성에서 나오는 보편성과 제주라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 특수성이 제주문화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무속서사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무속서사시를 본토와 비교해 볼 때 분명 공통되는 화소가 있는 반면에 본토와는 구별되는 화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사시를 통해 문화적 성격을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문화의 관계에서도 제주의 무속서사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주제어: 제주 서사무가, 원시, 시체화생, 악인징치, 고대, 건국서사시, 꽃, 중세, 문화갈등

【참고문헌】

1. 자료

- 서대석, 박경신 역주,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6.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 큰 굿 자료』, 200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건』,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6.

2. 단행본

- 권태효,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강등학 外 8人,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강현모, 『한국 설화의 전승 양상과 소설적 변모』, 역락, 2004.
김봉옥, 『제주통사』, 세림, 2000.
김영일, 『한국 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박종성, 『한국 창세 서사시 연구』, 太學社, 1999.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안진태, 『신화학강의』, 열린책들, 2001.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벅서스, 1998.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80.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3』 4판, 지식산업사, 2005.
조동일, 서종문, 『국문학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
제주사 정립사업 추진 위원회, 『耽羅, 歷史와 文化』, 세광인쇄공사, 1998.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황패강, 『한국문학의 이해』, 새문사, 1991.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J. F. 비얼레인 著, 현준만 譯, 『세계의 유사신화』, 1996.

3. 논문

- 강봉수,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도덕질서」, 『제주도 연구』 제24집, 제주학회, 2003.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강 철, 「사신설화의 소설적 변이」, 『영주어문』 제5집, 영주어문학회, 2003.
- 김동섭, 「토산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89.
- 김선희, 「세경본풀이의 재인식」, 『영주어문』 제5집, 영주어문학회, 2003.
- 김진하, 「송당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김진하, 「송당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3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김창일, 「이공 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2.
- 김현선, 「한국 구전 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4집, 구비문학연구회, 1997.
- 김현선, 「창조신화 연구서설」, 『세계의 창조 신화』, 신화아카데미, 2001.
- 김현선, 「한국과 일본의 창조신화 비교연구」, 『창조신화의 세계』, 전북대인문학연구소, 2002.
- 김현자, 「창조신화를 통해서 본 고대 중국인들의 우주 및 우주적 인간」, 『세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 2001.
- 김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혼인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6집, 제주대학교, 1993.
- 김화경, 「서귀포분향당본풀이의 구조분석」,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고석희, 「제주도 변신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85.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3.
- 서대석, 「서사무가의 문학사적 맥락」,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서대석, 「창세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0.
- 설성경, 「초공 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2.
- 양영수, 「제주 신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시론」, 『백록논총』, 창간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총 편집위원회, 1999.
- 양영자,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 연구」, 『영주어문』 제7집, 영주어문학회, 2004.
- 오대혁,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전승관계」, 『불교어문논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1.
-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9집, 구비문학연구회, 1999.
-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제10집, 1993.
- 이지영, 「한국 창세시조신화의 전승 변이 연구」, 『창조신화의 세계』, 전북대인문학연구소, 2002.
- 이청규, 「삼성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탐라문화』 제1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장주근,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탐라문화』 제1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전경수,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 『탐라문화』 제1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전경수, 「제주연구와 용어의 탈식민지화」,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 1992.
- 정진희,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조동일, 「탐라국 건국 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 연구』 19집, 제주학회, 2001.
- 최영숙,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제1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허남춘, 「삼여신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탐라문화』 2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허 춘, 「한국 신화의 계열론」, 『국어국문학논총』, 국어국문학논총간행위원회, 1992.
- 허 춘, 「삼성신화 연구: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허 춘, 「제주 설화 일고찰」, 『국문학보』 제13집, 제주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5.
- 허 춘, 「제주 설화의 특성 연구」, 『제주도 연구』 제16집, 제주학회, 1999.
- 현길언, 「사신전설의 고찰」, 『민속학논총』 2, 석주선박사교회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2.
-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 현승환, 「내 복에 산다게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 논문, 1992.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제 13집, 백록어문학회, 1997.
- 현용준, 「고대신화와 한국신화의 원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제2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제물과 신」, 『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6.

<ABSTRACT>

The Manner of Cultural Reception in Epic Shamanistic Songs of Jeju

Kim, Min-Cha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Literature i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eo, Nam-Choon

‘Epic shamanistic songs of Jeju’ are myth on the shamanistic gods. Plenty of stories have been handed down.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pic shamanistic songs of Jeju in certain periods the primitive, the ancient, and the medieval period. Furthermore, distinctive features of those three times will be discussed, and thus several points will be revealed as follows.

‘Bonhyangdang epic shamanistic song of Seogwipo’, one of the primitive eposes, can be interpreted to reflect the wish of primitive people who performed a religious service for the hunting god to pray for the prosperity of the game. ‘Chunjiwang epic shamanistic song’ shows how people in those times perceived the beginning of the heaven and earth. It also has a primitive heroic feature which can be traced back to ‘Jumong myth’. Jeju epos illustrates punishments for the evil as well. This indicates the moral sense. Incidents like transformation of dead people display the idea that evil men take divine punishment even after the death, which is the combination of a primitive notion that explains the origins of matters in addition to the moral sense.

Ancient eposes include a birth myth of nation in the first place. Since ‘Samsung myth’, the birth myth of nation Tamna, is found only in the book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how the epos was formed at first before it was handed down by word of mouth. Yet the original shape of the epos could be referred to ‘Bonhyangdang epic shamanistic song of Songdang’ and ‘Quennekitdnag epic shamanistic song’ carefully. Both songs are now handed down orally from the past. In addition, ‘Chogong epic shamanistic song’ shows its relations to ‘Jumong myth’. ‘E-gong epic shamanistic song’ has similarity with ‘Jumong myth’ as well. It also has many things in common with a variety of genre. Shamanistic epos from ‘Jumong myth’ seems to have passed on in the mainland Korea, however it has come to Jeju and been modified as stories of flower inspectors.

‘Samsung-grandma epic shamanistic song’ is an epos on the fertility god. At the part where two goddesses are fighting over the status of fertility god, primitive ideas like competition among gods were still alive in the ancient period. Moreover little stories on flowers are described as a form of rebirth and revival from the vitality, primitive image of flowers. Little stories about rebirth and revival can be interpreted that ancient people wished for prosperity through rebirth.

‘Segyung epic shamanistic song’, one of the medieval epos, aims to approach modern times by showing progressive and active lifestyle of the main character, Jachungbi. ‘Chasa epic shamanistic song’ is about Gangnim, who is from lower class but has better features than two powerful figures Yumnawang and Wonnim. Yumnawang belongs to this world and Wonnim to that world. The development of people’s awareness and the criticism on the authoritarian class can be seen in the ‘Chasa epic shamanistic song’, one of the medieval eposes. ‘Samgong epic shamanistic song’ is an epos on Junsangsin, the god of fate and stresses the idea that the fate

of a man never changes. Since the idea is similar to that of ‘a tale of Seodong’ and ‘a tale of Simchung’ of the mainland, it can be said that ‘Samgong epic shamanistic song’ is a mixed one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two stories. ‘Chisung epic shamanistic song’ tells that there was oppression on customs of shams from the center at that time. ‘Godaejang epic shamanistic song’ and ‘Yang-e-mok epic shamanistic song’ make it clear that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the center and the districts during the medieval time.



KEY WORD: Epic shamanistic songs of Jeju, The primitive period, Punishments for the evil, Transformation of dead people, The ancient period, Flowers, The medieval period, Cultural conflict.

*This study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mittee f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 master's thesis.